

지안 스님(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장)
"스스로 내 마음에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1월 18일) · 주간

제1026호 2015년 1월 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증일아함경〉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의 주인이 모든 것을 부린다.
마음 속 선을 생각해 그대로 행하라.

국제불교학교, 東大 학과 전환 외국인 포교 인재 불사 활성화

조계종 · 동국대 경주캠,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개설 협약

용인 화운사에 소재했던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대학원 내 학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구랍 31일 협약을 맺고 학과 개설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맺은 협약은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계약학과'다. 법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해 권역별,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내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를 위탁 개설 · 운영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기는 총 5학기제로 정원은 학년당 10명이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에 입학한 스님들은 경주캠퍼스 수행관인 석림원과 사라림에서 생활하게 되며 4학기 과정에는 3주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등록금 일체도 종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구니 대상이던 국제학교
학과로 전환되며 비구 포함
5학기제 수료시 석사 취득
등록금 전액 종단이 지원
졸업 후 템플스테이 법사 등
해외포교 인력으로 채용돼

학과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종단, 학교가 추천하는 위원 6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돼 학사 운영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 정원 △학생 선발 △교과 과정 △학칙 규정 △운영 전반 등의 사상을 협의하게 된다. 운영위 위원장은 학교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동국대에 일임하지만 국제불교학교에서 이뤄진 학사 커리큘럼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강사는 동국대 교수와 원어민 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는 영어로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동국대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교육 프로그램들도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행관에서의 대중생활도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재학 스님들은 24시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석사 과정 학과로 정식 전환되면서 해외 포교 전문 승가 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 화운사의 국제불교학교는 비구니 스님 전문 교육기관이었지만, 이번 학과 전환으로 비구 스님으로까지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종단은 전폭적인 재원이 투입된 만큼 졸업생들을 해외 · 재한 외국인 포교 인력으로 채용 ·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계약학과의 특성 상 의무적으로 산업체는 졸업생 중 일부 인원을 정식으로 채용하도록 구정돼 있다"이라며 "조계종의 경우 관광문화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채용하거나 해외 포교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는 오는 1월 초 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2월 전형을 거쳐 학생을 모집한 후 3월부터 정식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들이 법전 대종사 다비식에서 열반의 세계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을 거화 의식으로 장엄하고 있다. 다비장에 모인 불자들은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외침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남기신 지혜는 우리사회 큰 희망"

조계종 11~12대 종정 법전 대종사 영결식 구랍 27일 해인사서 엄수

조계종 11 · 12대 종정을 지낸 도림당(道林堂) 법전(法傳)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구랍 27일 해인총림 합천 해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추모의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에서 동시에 시작됐으며 해인사 대웅전 앞 영결식장에는 5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대중들은 영결식장 곳곳에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겼다. 영결식에 앞서 법전 대종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는 '수행납자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영결식에서 추모법문으로 "대종사께서는 일생일로(一生一路)의 삶으로 결사에 임한 뒤로는 일생토록 좌복을 여의지 않으신 눈 푸른 납자의 본분표상(本分表象)이셨다"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기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승려의 모든 위상은 수행에서 나온다'고 경책하시던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스님을 여읜 슬픔은 수미산보다 크고 향수해보다 깊다"며 "하루 속히 사바로 돌아오셔서 큰스님이 받으셨던 그 파참재(罷參齋)를 저희에게 나눠 주소서"라고 애도를 표했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원로의원 세민 · 고산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외에도 정갑윤 국회부의장, 故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절구통 수좌로 널리 알려진 수행납자 법전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제방의 수좌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5000여 불자들이 운집한 영결식 모습



영결식 후 다비장까지의 이운행렬

각계 사부대중 5천명 운집
눈 푸른 납자 본분이었던
절구통 수좌 마지막 애도

영결식 후 대중들은 법전 대종사의 법구를 해인사 연화대로 이운했다. 1000여 장이 넘는 만장이 먼저 앞장 섰다. 인로왕번을 선두로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불교기, 무상게, 향로, 위패, 영정, 법주, 법구, 문도, 장의위원, 비구, 비구니, 만장, 신도 순으로 이동했다. 이운행렬 좌우로는 불자들이 길게 늘어섰다. 대중이 모두 합장하고 게송을 외우며 한마음으로 법전 대종사가 남긴 불법홍포의 서원을 이을 것을 다짐했다.

영결식 후 진행된 다비식에서는 법전 대종사를 보내는 애뜻한 마음들이 모아졌다. 거화의 순간,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는 외침에 연화대에 모인 대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해인사 측은 다비식 이후 법전 스님 법문 담긴 작은 기념패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기념패에는 '안으로 망념을 이기는 공을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다투지 않는 덕을 펼치라'는 스님이 불자들에게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다.

한편, 법전 대종사의 49재는 구랍 29일 해인사 초재를 시작으로 1월 5일 해인사 고불암 2재가 진행됐다. 3재와 4재, 5재는 1월 12 · 19 · 26일 대구 도림사에서, 6재는 2월 2일 김천 수도암, 막재는 2월 9일 해인사에서 열린다.

합천 해인사= 노덕현 기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사실상 무산

기획재정부, 구랍 25일 관련 개정 시행령 발표

개신교 반발 · 정당들 눈치보기
종교인 과세 '먼나라 이야기'
정부 "올해 국회 수정안 제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앞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종교인이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또 미뤄지게 되면서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구랍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 16일까지이며, 1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거쳐 1월 30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고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전체의 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신교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종교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개신교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불교와 가톨릭은 조세에 찬성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46년 동안 정부와 종교계 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다. 70%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세항을 만들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를 없애되 종교인이 자진신고 · 납부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동안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에는 총선이,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026호 INDEX

종합 2·3
불교중앙博 유물 기증 캠페인
석전 스님 문학상 제정된다

시방세계 5
국회 정각회 호국연무사 위문



화엄만다라 12·13
불자 가수 김홍국 씨



사 령

의원 면직 박 재 완
면) 편집국 편집부 부장대우
2014년 12월 19일 부



“동사섭의 자비 실천하십시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유난히 일찍부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독거노인, 결손가정, 노숙인 등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음에 항상 안타깝다”면서 “차가움 속에서도 마음의 온기를 담아서 주변을 돌아보는 세모가 되도록 모든 이가 동참하여 동사섭(同事攝)의 자비(慈悲)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제 스님은 종정으로 승좌한 이래로 해마다 초파일과 연말 빠지지 않고 주위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22일 자비나눔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는 사부대중이 자비행에 나서기를 기원하며 1천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 4월에는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5백만 원을 쾌척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구랍 29일 진행된 세월호 현장 봉사자 표창식에서 진도사암연합회장 법일 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세월호 아픔 보듬기, 불교 신뢰 높였다”

자승 스님, 구랍 29일 자원봉사 스님들 표창 수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에 나선 스님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팽목항을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기도와 봉사 활동 등을 펼친 스님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조계종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 날인 4월 17일 세월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사단을 파견해 227일이라는 장시간동안 팽목항, 진도체육관, 안산합동분향소,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공로 포상을 받은 스님은 △법일스님(진도사암연합회 회장, 진도 향적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본부장) △진현스님(전 진도 쌍계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부본부장) △금강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진도 현장본부 부본부장) △선일스님(진도 현장본부 도감, 팽목항 법당 지킴이) △법전스님(진도 체육관 법당 지킴이) △원웅스님(팽목항 법당 지킴이) △원돈스님(시흥 대각사 주지, 안산에서 주도적으로 장례 및 49재 봉행) △지완스님(진도 체육관 지킴이) △도철스님(광화문 세월호 국민 단식 32일 동참) △항명스님(안산 쌍계사 주지, 안산 합동분향소 총괄) 등 총 10명이다.

수여식 이후 자승 스님은 “22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에 나선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스님들의 활동은 사회에 많은 감동을 가져왔고, 불교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2월 25일자 1024호 5면 ‘2천 청중 법열에 젖은 노래 향연’에서 **‘지장선원장 현호 스님’**이 ‘지장선원장 현오 스님’으로 잘못 표시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문화재 기증, 佛心의 나눔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증문화재 캠페인 전개

구랍 전국 100여 사찰 공문 보내
보존처리 · 문화재 등록도 진행
“망실 훼손 방지 및 연구 차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함께 채워가는 박물관’을 기조로 유물기증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불교중앙박물관 전경

2014년 10월 30일 불교계에서는 근현대 고승들의 유품들이 대거 문화재로 등록됐다. 용성 스님(1864~1940)의 〈신역대장경〉, 한암 스님(1876~1951)의 가사 등이 한국 근현대사를 반영했다며 그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이처럼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이 캠페인을 통해 불교계 곳곳에 산적해 있는 고승들의 유품을 모으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근현대 불교문화재를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공유해 공공의 격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함께 채워가는 박물관’을 캐치프레이즈로 전개되는 이번 사업은 불상과 불화, 불구 뿐만 아니라 조계종 근현대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현대 고승들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등과 평소 모시던 원불, 문방사우,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당시 시대가 반영될 수 있는 근현대 자료들을 기증받아,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까지 추진한다.

기증자에게는 불교중앙박물관 기증증서가 발급되며 전시 출품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한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증관련 단독코너를 개설해 기증유물 설명과 기증자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다.

문화재 기증 방법은 박물관 방문 및 전화(02-2011-1965)로 가능하다. 기증이 접수되면 기증 심의위원회에서 기증대강 유물의 가치를 평가해 문화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박물관장 화범 스님은 “불교문화재 기증운동은 후손에게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전해주고, 종단이 불교문화재를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박물관에서는 개인소장자들이 문화재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망실, 훼손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문화재의 연구와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며 일선 사찰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 측은 2014년 12월 전국사찰 100여 곳에 캠페인 공문과 포스터 등을 보낸 상태로 현재 청도 운문사 고서와 무진장 스님 유품 20건 등 총 100여 건이 기증 · 기탁된 상태다.

황지욱 학예사는 “국립박물관은 기증비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박물관의 경우 유관단체에서 많은 기증을 하는 상태로 기증을 통해 문화재 등록으로 적극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에 대해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교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안돼요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적발 89곳 대다수 무소속 사찰
총 102곳 명단 중 과반 넘어
투명한 재정 관리 필요성 높아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대다수가 불교 사찰과 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사찰 대부분이 소속 종단이 없어 사실상 계도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최근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68개와 단체 34개 등 총 10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102개 명단 중 불교는 89곳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다른 종교는 개신교 3곳, 대순진리회 1곳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 미작성 · 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곳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가운데 원효종은 종단 명의로 총 374건 7억77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

또한 조계종, 태고종, 대승종, 원효종, 법륜종은 소속 사찰이 기부금 영수증을 부정발급해 명단에 올랐다.

조계종 소속 사찰로는 광주 향림사(153건 6200만원), 청도 정혜사(286건 8억4100만원) 등 2곳이다. 명단에는 울산 대승사와 밀양 약천사가 조계종 사찰로 나왔지만, 소속 사찰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소속 사찰들의 부정 발급은 가장 많았다. 명단에 공개된 소속 사찰로는 울산 봉호사(915건 4억8800만원), 여수 성불사(638건 7억8900만원), 진주 실상포교원(371건 5억2000만원), 양산 용연사(403건 4억9900만원), 남원 용주암(38건 7500만원), 영동 원각사(33건 3400만원), 정읍 천일암(107건 1억7200만원), 창원 금강사(307건, 6억1600만원), 장수 세심사(119건 1억8100만원), 함양 연화사(305건 5억4500만원) 등이다.

종단이 허위 발급했던 원효종은 소속 사찰인 창원 관음정사(272건 4억7600만원), 울산 평해사(411건 2억7200만원)가 거짓영수증을 발급해 문제가 됐다.

대승종 소속 사찰로는 구례 상은사(204건 5억6100만원)가 법륜종은 대전 칠불사(375건 5억2300만원)의 거짓영수증을 발급했다.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립대 불교학과 학생 지원 ‘활발’

대학별 1.8~3.3:1 경쟁률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학 불교대학에 학생들의 활발한 지원이 이어졌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서울캠퍼스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불교학부 24명 모집에 78명이 지원해 3.25대 1을, 불교사회복지학과에는 9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3.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동국대의 전체 경쟁률은 4.47대 1로 2013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학부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불교아동보육학과는 1.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 경쟁률은 4.77대 1로 2013년의 3.27대 1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경우 서울캠퍼스간 이동제도 및 파라미타칼리지, 기숙형 대학 등의 장점이 경쟁률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금강대의 경우 사회복지학과는 3.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불교학과는 1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 전체 경쟁률은 1.2대 1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학硏 사무국장 지오 스님 임명

교육원 구랍 29일 임명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오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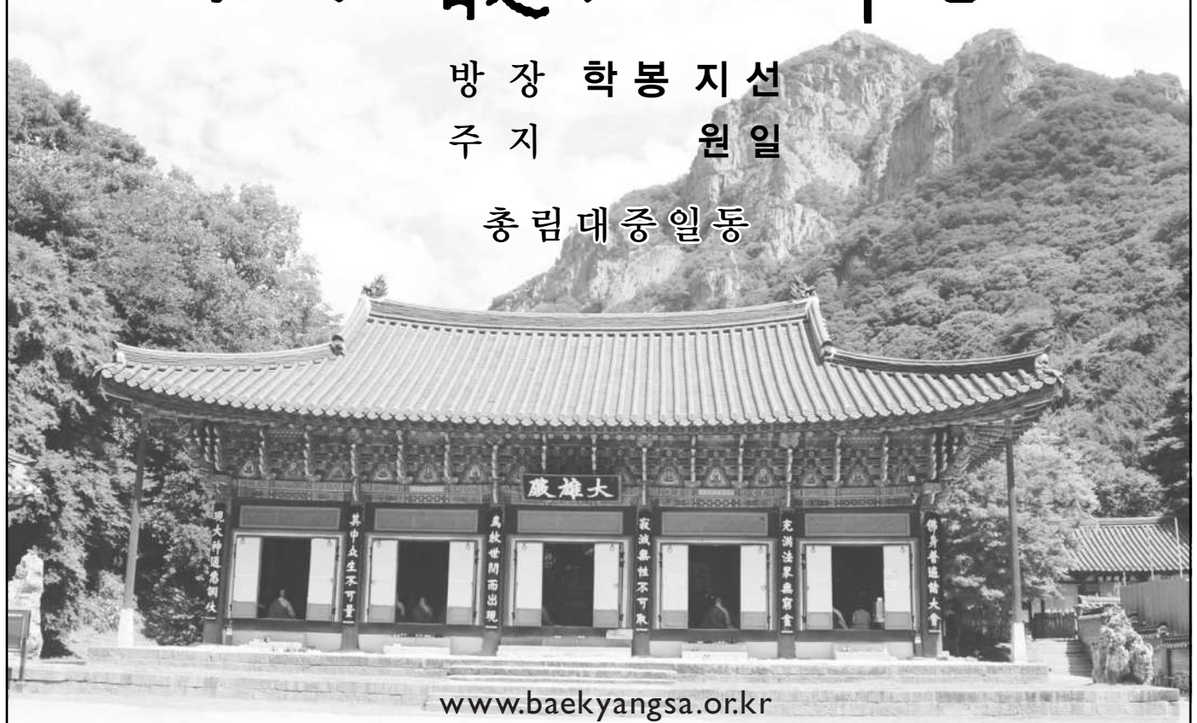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구랍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오 스님을 임명했다. 현응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후 “불학연구소는 승가교육의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 승가교육과 개혁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오스님은 도성스님을 은사로 2000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고불총림, 파계사, 봉암사, 통도사 영축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서울 화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도 활동했다.

이와함께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에는 박소령, 최애리 씨가 채용됐다.

박소령 상임연구원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 대학원 석 ·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최애리 연구원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서지학을 전공했다. **신성민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방장 학봉 지선
주지 원일
총림대중일동

www.baekyangsa.or.kr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감찰원장 동일 학봉
문화원장 원효 동암
교육원장 백천 동담
포교원장 혜각 동성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무관 도원
사서실장 동판
기획실장 영산 동우
총무부장 선법 태산
부산교구 동암 원효
충남교구 도진
경남교구 대비
경기교구 덕진 도광
종회의장 대공 동곡
종회부의장 도진 동영
종회의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석전 스님 기리는 문학상 제정된다

불교문예, 올해 '제1회 석전문학상' 시행

근대 불교 지도자이였던 석전 스님〈사진〉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한 문학상이 제정된다.

불교계 문학 계간지인 〈불교문예〉는 최근 지면을 통해 '제1회 석전문학상(가칭)'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불교문예〉 편집위원 등을 중심으로 석전문학상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심사와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석전 문학상은 기존 불교 문단에서 중진 문인들의 작품을 선발하는 성격으로 운영되며 심사 분야는 시 · 시조와 소설 · 평론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시, 시조, 소설, 평론 등 4가지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석전 스님은 근대 불교 지도자이면서 대강백이셨고 뛰어난 시조 문인이었다"면서 "신석정, 서정주,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이 모두 석전 스님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의 문학세계를 다시 조명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선양할 수 있는 문학상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석전 스님은 3000여 수가 넘는 한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육당 최남선이 편역한 〈석전시초(石顚詩抄)〉에 남은 420수가 전해지고 있다.

석전 스님의 문인, 지식인으로 풍모는 그를 모셨던 제자들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육당 최남선은 〈석전시초〉에서 "석전 스님을 만나면, 내전이고 외전이고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석전 스님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위당 정인보도 〈석전상인소전(小傳)〉을 통해 "스님과 함께 길을 갈라치면 한국 땅 어디를 가나 그는 모르는 것이 없다. 사농공상(士農工商) 무엇에 관한 문제를 꺼내든지 화제는 고갈될 줄 몰랐다"고 술회했다.

서울중앙고보와 고창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방황하던 자신을 중앙불교전문학교 제자로 받아들여준 석전 스님에 대해 미당 서정주는 "나의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의 마음으로 모셨다.



시조시인으로 석전 스님 기려
올 하반기 시상식 추진 계획
시 · 시조, 소설 · 평론 나눠 선정
석전 스님 문학세계 연구 추진
불교 문단 활성화 기대 높아

석전 문학상 제정이 추진되면서 문학상 준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당대 문인이자 지식인이었던 석전 스님의 문학세계를 연구 ·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혜관 스님은 "석전 스님의 문중을 중심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불교계 최고 수준의 문학상으로 발돋움시키고 이를 통해 석전 스님의 문학세계에 대한 전문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문학상 상금도 불교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도 충실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전 문학상이 추진됨에 따라 불교 문단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 관련 문학상은 현대불교문학상, 유심 문학상 등이 대표적이다.

혜관 스님은 "불교 시인, 소설가 데뷔해도 창작 환경이 척박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진 문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석전 문학상 제정을 계기로 중진 문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문인이면서 지식인이었던 석전 스님을 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한해 성과 '한눈에'

〈2014 포교현황〉 발간… 사업 · 통계자료 담겨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사업 및 활동을 담은 '2014년 포교현황(이하 포교현황 · 사진)'을 발간했다.

〈2014년 포교현황〉에는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포교원 사업과 통계자료, 포교종책과 관련한 연구자료 등이 담겨있다.

포교현황에는 2014년을 중심으로 신도품계, 전문교육, 포교사단, 전법도량, 전법단, 어린이 청소년 지도사 등에 대한 지역별, 활동영역별 통계자료가 실렸다. 특히 포교종책연찬회 내용을 통해 제주 및 충남내포지역 포교 환경과 통계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도품계 현황의 경우 2011년 7월 신도품계시행령을 공포한 이래 2014년 11월 현재 2만9068명이 신도로 새로 등록하고 발심 품계를 받았으며 7924명이 행도 품계를 받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단인가 불교대학은 125곳으로 파악됐다. 포교사의 숫자는 남 2210명, 여 2251명 총 44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포교사는 승 · 재가를 모두 포함해 2014년 현재 513명이 배출됐으며, 2013년부터 화운사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양성되면서 비구니 국제포교사가 소폭 늘어났다.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및 파라미타 지도사는 694명으로 집계됐다. 포교원은 "2008~2010년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배출을 강화했다"며 "특히 2008년 불교청소년지도사를 신설하면서 자격 배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09년 48곳으로 시작한 전법중심도량은 2014년 현재 121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포교현황에는 2014년 55~60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수록됐다. 포교원은 '34대 집행부 지역중심 종책 기조와 포교종책 과제'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 '충남 내포지역의 포교현황과 실천 과제' '제주지역 전법 실현을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 '감성과 감동의 시대, 문화포교를 말한다' '군 포교의 지향과 대학생 포교와의 연계성' 등을 주제로 종책 연찬회를 열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편찬사에서 "〈2014년 포교현황〉을 발간함으로써 포교원 사업과 통계 · 연구자료를 남겨 그 기록들을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포교활동 및 사업계획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 책의 내용이 포교의 지평을 넓히고 계시는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포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남북 불교도 협력 연대 강화하자"

민추본-조불련, 새해 서신 왕래

광복 70년을 맞이해 남북 불교도가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공고히 다져가자고 뜻을 모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새해인사를 담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이다.

민추본은 12월 30일 민추본 총재 자승 스님 명의로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에게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불교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남북불교 대표자간 만남'을 제의했다.

같은 날 오전 북에서는 새해인사 서신을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 명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전달했다. 다만 만남 제의에 대한 답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승 스님은 서신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새해에 남과 북이 서로 합심하여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수린 위원장 역시 답신에서 "조국해방 70돌을 맞아 종단 모든 분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며 "새해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배현진 기자

C&M 노사 합의 뒤엔 불교계 도움이

구랍 30일 재고용 합의 결실
170여일 동안 3대종교 함께해
종교인들 본사 항의 방문도
해고 노동자 "많은 위안 얻어"



조계종 노동위 수석부위원장 덕본 스님이 구랍 29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4대 종교인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많이 힘이 되죠. 6개월간 노숙농성을 하고 30m 전광판 위에서 40일 넘게 밧줄을 매달고 있어도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치지 말라고 종교계에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12월 29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앞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천주교, 기독교와 함께 '씨앤앰(C&M)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합동기도회'를 개최한 날, 이를 지켜보던 씨앤앰 노동자 채윤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계를 필두로 시민단체에서 힘을 보태준 덕분에 170여일에 이르는 씨앤앰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구랍 30일 결실을 맺게 됐다. 이로써 해고노동자 109명 중 이직 · 전직을 제외한 83명 전원은 신설법인을 통해 씨앤앰에 재고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 원인이 됐던 계약해지건 역시 향후 매각 시에도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용안정도 보장받게 됐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 해고에 맞서 단식을 불사하며 지난 7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노동위가 "씨앤앰 대주주인 투자회사 MBK가 기업 이윤만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 시킨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3대 종교 노동 · 인권위와 함께 매주 종교별로 기도, 법회, 3보 일배 등을 진행해온 것은 지난해 11월 4일. 12월 24일에는 전광판위에서 고공농성중인 두 해고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도철 스님과 양한웅 노동위 집행위원장이 크레인에 오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요청이었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다.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종교인들에게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씨앤앰 사태 해결에는 3대 종교가 힘을 모아 장기간 활동함으로써 결집된 여론으로 인해 회사 측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MBK본사 항의 방문을 감행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아이스버킷? 겨울에는 '아이연탄맨'!

아름다운동행, 연탄 릴레이 기부 캠페인 시작

릴레이 기부의 유행을 이끌었던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이어 이번 겨울에는 '연탄 릴레이 기부' 움직임이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 연탄 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 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불황 여파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연탄을 지원받아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을 덜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내는 슈퍼히어로물 아이언맨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아이연탄맨'은 손에서 빔이 나오는 아이언맨에 착안, 자신의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며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2명에게 사진을 전송하면 지목받은 이들은 24시간 내에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후 5장의 연탄(3천원)을 기부하면 된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주변인들에게 이를 추천했던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은 방식이다.

아름다운동행 직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돼 현재 조계종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되고 있다. 조만간 스님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참여는 1월 31일까지며 기부된 연탄은 서울의 달동네 중 한 곳인 홍제동 개미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측은 "연탄 기부가 줄어 다음달이면 당장 연탄 재고가 바닥난다고 들었다"며 "4월까지도 연탄이 꾸준히 필요하므로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RS : 060-700-0011(1통 3천원), 계좌 : 외환은행 630-008535-598(아름다운동행)

배현진 기자



일 주 문



월정사 탑돌이 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10일 월정사 9층석탑 앞에서 탑돌이법회를 개최한다. (033)339-6800



제2기 사찰음식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2기 사찰음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3218-4900



정초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초다라니 철야정진기도를 진행한다.(02)768-8500



청계사 건전청소년 육성MOU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구랍 22일 의왕경찰서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취임

도자미술사학자인 김재열 前경기도박물관장은 구랍 29일 문화재청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에 임명됐다.

"동산인 결집… 염불 신행 생활화"

이종현 제4대 동산반야회 이사장



가족법회, 1인 1도반 추천운동 추진

동문 기반한 동산발전 동력 구축

대중화 · 생활화 · 정토화 사업 전개

구랍 13일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종현 신임 이사장(59 · 사진)은 요새 늘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 동산과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동산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 당부하기 위함이다.

"2천 동문의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죠. 동산이 다시 성장 하는 데 동문들이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인 1도반 추천 운동, 가족법회 등을 전개해 동산발전의 동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듯 먼저 동산인들 챙기기에 나서며 내부 결집을 공고히 하는 까닭은 앞으로 동산이 해나갈 사업에 동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산반야회는 3대 강령인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정토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행활동의 성숙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전국염불만일회도 1년에 1차례 개최되던 것을 분기별로 염불스테이 형식을 빌려 수시로 개최해 불교생활화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장소는 보통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동산 근본도량 '아미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사장은 아미타사 활용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우선은 인근 부지 밭 1천여평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해 도시에 거주하는 동산인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텃밭은 학교 기수별, 반별 혹은 개인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가족법회도 병행하면서 신행과 여가활동을 함께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직접 밭을 고르기 위해 아미타사를 종종 찾는다는 이 이사장은 다가올 봄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동산의 정신적 지주이며 초대 법주인 무진장 대종사와 창립자 고 김재일 초대 이사장께서 일궈놓은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입적하신 후 동산의 구심점이라고 할 만한 것 역시 상실돼 온 것이 사실이죠. 동산가족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나는 소통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산회원들의 기수별 모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그 연장선이다. 이외에도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무진장 대종사와 김재일 이사장의 업적을 선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그들이 한국불교에 기여한 역할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사찰 법회의 정례화, 기복불교가 아닌 전법불교로서의 재가교육 등 그동안 동산이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종현 이사장은 동산이 앞으로도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한다며 말을 끝맺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21세기 한국인상 종교부문 대상 수상



(사)대한불교칠여래종 종정 진성 스님(부산 자비선원 회주)은 구랍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에서 종교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은 2002년 첫 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회인사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인상' 주최 측은 "진성 스님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봉환 및 캄보디아 캄퐁수쿠 지역 병원 건립을 비롯해 쌀 60톤 기부 등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자원봉사 대축제서 봉사상 받아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김해 불모사 주지 동담 스님은 구랍 19일 부산시자원봉사대축제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동담 스님은 12년간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음성공양을 펼쳤다. 또 매년 5월 어버이날에는 70대 이상 시각장애인을 인솔해 봄나들이 봉사와 11월에는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의 점심식사 제공 등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5기 해외봉사단 파견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구랍 23일부터 1월 6일까지 제5기 해외봉사단 20명을 파견했다. 동계방학 해외봉사단은 1차 캄보디아(12월), 2차 라오스 파견(1월)으로 진행된다. 1기~4기에 참가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해 교육봉사(위생교육, 예체능교육, 언어교육 등), 노력봉사(환경미화, 벽화작업, 시설보수 등), 문화교류(현지 생활체험 및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원 산하단체, 조한곤 국장 위문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 산하 단체 기관 단체 임원들은 구랍 30일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동대 일산병원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 중앙신도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임직원들과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국장 노휴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사무국장 혜안 스님 등이 함께해 조 사무국장의 쾌유를 기원했다.

조 사무국장은 2013년 11월 라오스 자원봉사단 답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지난 1년 여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직 하반신이 자유롭지 못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사무국장은 오는 12월 31일 국립재활원으로 병원을 옮겨 재활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조 사무국장은 불교 포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인재다. 불자들이 조 사무국장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100-028-925647 (예금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윤점열)

이나은 기자

"정거장 아닌 정착점되는 대불련으로"

이채은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으로 이채은(건국대 글로컬, 법명 진성인 · 사진)회장이 취임했다.

이채은 회장은 구랍 26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14 대불련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거쳐 취임했다.

이 회장은 "2013년 51년차 박지연 중앙회장의 활동을 보고 막연하게 중앙회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던 중 지난 해 중앙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불련의 한계를 느껴 회장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느낀 대불련은 대학생 불자들의 정거장 같은 느낌이었다.

"대학생들이 중앙 또는 대불련 지부나 불교동아리 회장을 하고 난 후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불련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 아닌 오래도록 법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불련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015년 53년차 대불련의 모토는 '꽃다발을 든 판다'이다.

'판다(panda)'에는 올해 대불련 정책들이 하나씩 담겨있다. 'P'는 Passionate(열정적인)의 앞글자로 대학생 불자들이 열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A'는 Actibity(활동)의 앞글자로 예비대학생을 위한 수능템플스테이를 비롯해 각 지역의 지회 · 지부연합활동을 권장 · 장려할 방침이다. 'N'은 Network(네트워크)로 불교동아리를 이끄는 지회장의 리더쉽을 강화하고 지회조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는 Dream(꿈)으로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꿈 관련 교육을 비롯해 통일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마지막 'A'는 Accomplish(성취하다)의 앞글자로 대불련 회원들과 이런 목표를 이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어머니께서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땐 그 말을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뜻을 이해하게 돼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이 회장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불교학생회 회장과 대불련 중앙집행위원회 기획차장 등을 역임하고, 건국대 불교학생회 회장 당시 가등록 지회였던 불교학생회를 대불련에 정등록했다.

이 회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며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지금 당장 내 행복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대불련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謹賀新年 새해 복 2015

佛紀 2559年 乙未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가운데 영웅이라 한다. 〈법구경〉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자선단체) 세상을 향기롭게

선 원 장 정여스님(前 범어사 주지)
붓다선원 주지 도경스님
삼랑진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해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여여선원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여만숙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명상회, 십만배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양정동)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재가불자들의 나눔공동체

자 비 신 행 회

상임이사 정원채
부설기관장 김삼옥
이혜자
이천규
임영광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7번지 전화 062)234-0090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 교구

종무원장 강 관 정(칠곡비룡사)

행정부원장 임법운 (대구 관음사)
총무국장 홍영범 (창녕 우포정사)
재정부원장 김도법 (김천 칠장사)
교무국장 이성우 (성주 임정사)
지방종회의원 종회의장 김만허 (대구 대원사)
재무국장 이명심 (봉화 봉선사)
종회부의장 추원진 (대구 죽림사)
사회국장 서지산 (김천 월정사)
종회부의장 권금륜 (칠곡 광명사)
규정국장 김지형 (성주 자은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구. 송학리 235-3)
전화 054)975-4339 / 전송 054)975-0206



구랍 2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2014년 마지막 법회에서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자회 소속 불자들이 훈련병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새해 건강과 무사한 군생활을 기원하고 있다.



격려의 말 마다 불자 훈련병들은 힘찬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이들의 얼굴에서 젊음의 패기와 새해의 희망이 엿보인다.

"無有恐佈 마음에 새겨라"… 불자 국회의원 위문

〈무유공포〉

구랍 28일, 국회 정각회 및 직원 불자회 등 20여명 논산 훈련소 방문

"위아래, 위위 아래, 위아래, 위위 아래!"

군에 갓 입대한 혈기 넘치는 3000명의 훈련병들이 우렁찬 환호성을 내지른다. 최신 댄스가요에 맞춘 여성 댄스팀 소울퀸의 춤사위에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은 혹독한 추위도 잊고 열광했다.

구랍 28일 육군훈련소 군법당인 호국연무사는 새해를 앞두고 훈련병들의 기운을 되살리는 한바탕 젊음의 무대가 펼쳐졌다. 잇달은 사건 사고로 침체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가 처음으로 군부대 위문행사를 개최했다.

국회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불자회 소속 불자들 총 20여명이 개최한 이날 위문행사에서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법문과 함께 신명나는 무대가 마련돼 고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에게 큰 위로를 해주었다.

이날 위문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정갑윤 정각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정각회 부회장, 임수경 · 홍철호 국회의원 등으로 십시일반 모은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 정각회 모임의 이번 훈련소 위문방문은 1983년 정각회 창립 이후 최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별위문은 있었지만 단체 차원 방문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방문은 불자 국회의원들이 불자 훈련병들을 만나 신심을 증장시키고, 의미있는 훈련소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대표로 인사말을 건넨 주호영 정각회 부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육군훈련소를 방문한 배경을 설명하며 군대에 갓 발을 디딘 불자청년들에게 경전에 나오는 덕담을 건넸다.

주호영 부회장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무려 36개월을 복무한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여러분은 한결 수월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공짜로 몸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주호영 부회장은 "혹여 자대에 가면 못된 고참을 만나지 않을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포탄이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듯이 2014년의 사건사고로 인해 군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다. 걱정하지 말고 '무유공포(無有恐怖)'라는 반야심경의 글귀를 늘 되새기고 군 생활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훈련병 3600여 명 손잡아 주며 격려
호국 연무사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정갑윤 정각회 명예회장(국회 부의장)은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훈련병들의 손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힘찬 군생활을 당부했다.

정 명예회장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태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사회의 희망"이라며 "추운 겨울에 처음 군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고생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여러 가지 정책 차원의 개선도 약속했다.

정 명예회장은 "여러분들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가산점제 부활 등을 비롯해 여러 복지혜택 확대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법당에 모인 4000여명의 훈련병들은 의원들의 발언 중간 중간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며 즐거워했다.



정각회 국회의원들이 법회 후 훈련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법회 후 댄스팀의 공연은 장병들을 열광시켰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정각회를 대표해 호국연무사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위문행사에는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서상국 육군훈련소장도 참석했다. 특히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건강한 청년 시절의 생각은 인생을 좌우하는 첫 단추라며 좋은 마음가짐으로 군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우 스님은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을 소개하며 "선택받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생각과 말, 행동, 습관, 성격 등을 통해서 운명이 좌우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평생 동안 간직해 주었으면 한다. 바르고 청정한 생각을 기반으로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회 뒤에는 신명나는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신보현 훈련병은 "군 입대 전에 부모님과 같이 절에 다녀 군에 와서도 군법당에 나오게 됐다"며 "위문방문으로 자대배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사라졌다. 당당하게 군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문 행사에 동참한 노우진 국회 직원불자회 회원은 "추운 겨울 힘든 훈련을 받을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우리세대가 통일을 비롯해 나라를 발전시켜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을 더 쏟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가진 군 위문 행사는 군대에서 새해를 맞이할 훈련병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자들에게도 이들의 젊은 기운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논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 군 가산점 등 제도 보완에도 힘쓸 터"

정갑윤 정각회 명예회장(국회 부의장)



정갑윤 명예회장은 이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군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각회(회장 강창일)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신행단체로 1983년 창립됐다. 현재 46명의 불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 군 가산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만큼 병역의무는 불가피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며 "군 가산점 비율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정 명예회장은 아들 2명을 모두 해군 병장으로 제대시켰으며 자신도 육군 이병으로 제대했다. 정 명예회장은 "그동안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극소수"라며 "현장에 오니 우리 병사들이 씩씩하고 자기 충만감에 벅차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 든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명예회장은 "일선 부대에서 군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고, 또 불자들이 힘을 모아 인성교육을 비롯해 위문 법회 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소개하며 "새해에는 불교계에서 보다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행복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풍삼정

*풍삼정 홍삼*은 인삼을 직접, 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홍삼만을 선별 연구개발하여 차별화된 홍삼액 제조공정인 저온.숙성.발효단계를 거쳐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으로 홍삼이 가지고 있는 유효사포닌(32종 이상)과 그밖의 유익한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입니다.

종류 풍기정품홍삼액(명품) · 순홍삼액 골드 · 인삼향기홍삼액(골드) · 풍기홍삼편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 홍삼먹은사과즙 · 풍삼정쥬니어홍삼액 · 풍삼정홍삼환

■ 홍삼진액 – 6년간 홍삼을 장시간 진공 농축시킨 제품으로 현대인의 피로회복에 좋은 제품!!
(내용량 240g / 가격 140.000원. 홍삼청국장 · 수삼 · 홍미삼 · 백미삼)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전 화 054)636-2174
휴대폰 016-815-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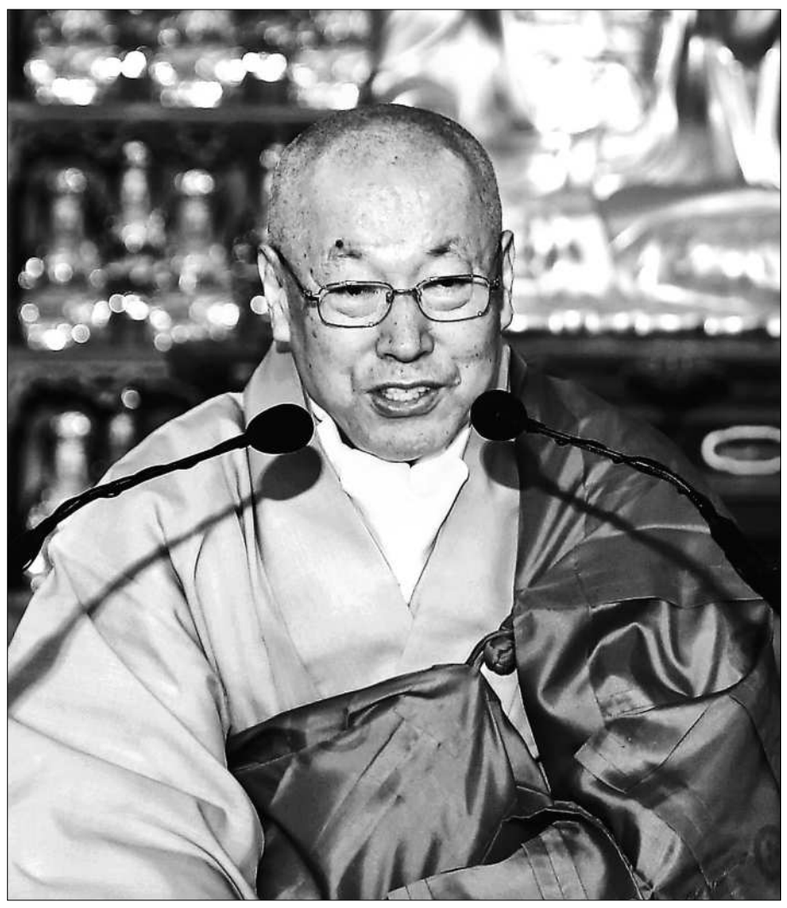


“스스로 내 마음에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봉은사 불광보조 일요법회

지안 스님(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구랍 21일 불광보조(佛光普照) 일요법회에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스님을 초청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주제로 법회를 열었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혼란스런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안부를 묻고 불교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면서 자비와 지혜가 항상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지안 스님은 …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와 역서로 〈왕오천축국전〉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처음처럼〉 〈마음속 부처 찾기〉 〈대승기신론강해〉 〈금강경 이야기〉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연꽃잎 달빛 향해 가슴을 열고〉 〈바루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며〉 등이 있다.

자비에는 적이 없다

불교는 법회를 통해 부처님 법을 선양하고 불자님들의 심신을 단련해 복덕과 지혜를 닦아나가는 그런 신행활동을 하는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회는 귀의, 찬탄, 참회, 발원하는 마음으로 신행의 정서를 다지며 항상 자비심과 지혜심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불교의 정서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비에는 적이 없다. 자비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혜무번뇌(智慧無煩惱), 즉 지혜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을 따르면서 우리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롭게 되도록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과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이신 분들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말도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주제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주제도 마음이고, 인생의 주제도 물론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있는 사람, 또는 친척이나 친지들의 안부를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부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가, 어떤 생활에 괴로운 문제는 겪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이 안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타방 부처님이 보살을 보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요즘 잘 계시는지 안부를 여쭙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부를 묻고 살 듯 스스로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에서 항복기심(降伏其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항복한다’ 이는 망심(妄心)을 항복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화엄경〉 정행품에는 선용지심(善用之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쪽 경에서는 마음을 항복시키라 설하고, 한쪽 경에서는 그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합니다. 항복기심은 망심, 허망된 생각, 상(相)이 치솟는 마음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이고 ‘마음을 잘 써라’는 말은 본래 우리 진심(眞心), 마음의 진여(眞如)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설해놓은 법문에 따르면 이 진심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괴롭다, 절망스럽다, 심지어 자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망심에서 하는 일입니다. 번뇌가 일어난 상태에서 상(相)이 하도 높고 짙게 붙어 있는 상태, 이런 마음상태에 있을 때, 원망을 품고 불만을 갖고 심지어 현실에 어떤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고 있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복해야할 망심에서 일어나는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 **원하는 것 줄어들어야**
> **일상생활 단순해지고**
> **그래야 인생 행복해져**
> **그렇지 않으면 불만만 가득**

선용지심해야 하는 이 진심은 무한한 마음입니다. 우주 허공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아무리 번뇌가 치성하고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심, 망상심은 전체의 마음에 비교한다면 우파니사타분(지극히 적은 수량을 뜻함)의 일(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참 묘한것입니다. 인생이 지극히 우파니사타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문제에 막혀서 내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때로는 부아가 일어나 남을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매일 같이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야

틱낫한 스님이 있는 플럼빌리지에 프랑스인들이 스님을 보러 자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스님은 내방객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당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읽고 관찰하라고 한답니다. ‘워킹 메디테이션(walking meditaion)’이라고 하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본다든지,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마음을 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불교의 수행법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다스려진 마음과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겁니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 2년 전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일간지에서 그 스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이 매우 잘사는 나라여서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 스님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전부 몸만 이해할 줄 알지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몸 치장하고, 옷 사입고, 놀러다니고, 육체를 건사하는데는 매우 민감하고, 매우 부지런한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선 모순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습니다. 인과로, 인연으로 설명됩니다. 불교에서 한 차원 높여 설명하면 일심(一心)법, 인과법, 인연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내 인생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니,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눈은 보고 싶은 것도, 귀는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인간의 음양이 증폭합니다. 행동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구업(口業)도 늘어납니다. 언어의 양을 봤을 때, 옛날 사람보다 많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삽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필요 없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라즈니쉬는 “인간의 생각 중 필요한 것은 100%가운데 5%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가지 하는 생각 중 95가지는 무익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말해본다면, 첫째 단순해져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원하는 것이 많으면 평생 불만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천만에요.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대망상, 허영, 엉뚱한 생각에 의해 자꾸 욕망의 마음을 키워서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생활문제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많아질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생기죠.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다들 비만해지지 않으려고 신경 쓰죠. 몸뿐 아니라 정신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린 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평등을 뜻합니다. 마음에 집착된 것을 버려서 마음을 평등하게 편안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장 빨리 전염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쁜걸 영향 받습니다.

양쪽 다 버려야 대립 · 증오 사라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보수 · 진보의 대립 등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불교를 흔히 중도라는 말로 이야기 합니다. 양쪽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 못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계에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말하죠. 하지만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양쪽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쪽으로 편들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한쪽으로만 편듭니까. 한쪽만 편들면 다른 쪽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서 이런 행동을 제일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균열이 가게 합니다.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항상 편안하게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면 솔직해지고 밝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정보화 시대는 온갖 지식이 범람합니다. 이 쓸데없는 지식을 갖고 아는 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도 모른 체하고 살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잡지식으로 잘난 체 하려하고 정법(正法)이 아닌 사법(邪法)을 만들려 합니다. 옳고 바른 것이 아닌 곡해하고 왜곡한 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며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집착도 미움도 버려야 평화로워진다

마음은 반드시 정성을 바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정을 붙일 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싫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순수하고 소박한 상태이면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져야 행복을 느끼지, 항상 의식이 혼란된 상태에서 복합적 감정,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식구조가 돼서 때로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가식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정체를 노출 시키는 것이 가장 편한데 그러지 못하죠.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상대적 빈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됐지만, 남과 비교하다보니 상대적 열등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못났다라는 자학증세, 혹은 자조감 같은 것이 일어나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50대 중년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 대입에 실패하자 창피해서 두문불출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열등감, 수치심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고 뭐고 외출을 안 한다는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괴로워지고 남도 괴롭게 되고 우리 자리이타라는 대승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나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나도 손해되게 하고 남도 손해되게 하고 거꾸로 마음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결과는 안 좋은 것만 전부 나타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게 줄어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허망된 생각에서 오는 욕심을 버리고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실천해가야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불교 정신을 본받아 내 마음의 안부를 묻고 다른 사람에게도 스스로 마음의 안부를 묻도록 하십시오.

광주불교문화대학 · 대학원

2015년도 신입생 모집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칠 수 있는 불자들의 평생불교교육 전법도량으로 오세요.
참다운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불교문화대학
· 강의시간 :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월 1회 불교문화 유적답사 실시
· 지원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 교육과정 : 1년
· 특 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응시 자격 부여
· 강의내용 : 불교예절 / 불교기본의식 /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가르침 / 불교사/ 불교문화 / 선의 세계

▶ 불교문화대학원
· 강의시간 : 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지원자격 : 불교대학(타대학 포함)을 졸업하신 분
· 교육과정 : 3년
· 강의내용 : 다양한 경전공부

http://cafe.daum.net/bulgyo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 ☎062)228-9098
광주불교문화대학대학원 광주 금남로3가 구)현대예식장 3층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부종정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법경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혜암 사회부장 무간 재무부장 송광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서울경기종무원장 보명 충남종무원장 지향
충북종무원장 지허 경남울산종무원장 해산
전라남북종무원장 명재 대구경북종무원장 어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무간 혜암 혜인

종도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천불정사, 지역 고시생 지원 '눈길'

12월 29일 부산대와 약정서 체결

201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신익승(행정학과 02학번)씨가 합격소식을 듣고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부산 천불정사, 고담 스님이 있는 곳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합격자 천민정(경영 07학번), 이상후(법학 06학번)학생도 고담 스님께 감사하다며 거듭 절을 올렸다. 그들은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은 스님에게 감사해하며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스님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의 든든한 후원처가 되어주고 있는 천불정사는 고시생들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 화제가 되고 있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구랍 29일 인재불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부산대 총장실에서 부산대 발전을 위한 참여 약정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천불정사는 매년 10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을 부산대 5급 행정직 공채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

협약식 자리에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부산대 김기섭 총장,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강재호 지도교수 외 천불정사 신도를 비롯한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이 참가했다.

고담 스님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며 고시생을 향한 격려를 당부했다.

고담 스님의 인재불사는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다. 천불정사 고담정(古潭亭) 3층을 부산 행정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8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내주며 지원한 것.


천불정사가 부산대 총장실에서 발전 기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부산대 행정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2006년부터 기숙사 제공
부산대에 1억 3000만원 기부
비행 청소년 템플스테이 계획

당시 부산대학교는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 부산대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했다. 그간의 고담 스님의 도움을 기리는 차원에서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공부공간 신목정(信木庭)에 고담정 현판을 걸고 구랍 29일 현판식도 아울러 진행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고담 스님은 부산대 신목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000만원, 총 8000만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수험생들을 천불정사에 정기적으로 초청해 공양과 덕담으로 지도 격려해왔다.

고담 스님의 인재 불사는 비단 부산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1993년부터 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천불정사에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여명의 수험 준비생들이 찾아와 무료로 숙식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방해요소를 없애고 노력한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인사하며 나간다"고 전했다.

앞으로 고담 스님은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소외 된 곳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3개월~6개월 과정의 교화 템플스테이를 여는 것이 목표다.

고담 스님은 "비행 청소년이란 어린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빚어진 결과일 뿐"이라며 "청소년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2015년 한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요"

부산 한마음 선원, 새해맞이 '하나로 포행'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은 하나로길 포행으로 새해의 문을 열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이 새롭게 만든 하나로(路) 산책길에는 '주인공', '부처님의 마음', '자비의 등불' 등 새해 발원들로 가득 찼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새해를 맞아 부산 한마음 선원에서 '2014년 철야정진 및 2015년 새해맞이 하나로(路) 포행'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하나로 포행은 지난 새벽 예불과 떡국 공양 나누기만 해왔던 새해맞이 프로그램에 하나로 산책길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2014년 12월 31일 철야정진 수행, 촛불재 및 캠프파이어에 이어 2015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로 새벽예불, 발원문 적기, 일출 해맞이 마지막 순서 '하나로 포행'으로 이어졌다.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하나로는 선원의 좁은 산책로지만 그 길을 걸으며 낼수 있는 마음은 무궁무진하다"며 "내 마음의 근본을 발견하겠다는 큰 마음과 나와 이웃을 위하는 대장부의 마음을 내면서 새해 첫날, 한 걸음 한 걸음 내면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하나로 산책길 끝에 위치한 명상 쉼터에서 참가자들은 동그랗게 만든 나무에 서원을 적었다. 이어 길을 따라 엮여져 있는 철망에 서원들을 붙이고 발원하며 마음을 모았다.

이날 하나로 포행에 참석한 청년회 한정석(33)씨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 정진의 마음을 다져 연말 연초가 더욱 보람됐다"고 말했다.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포행 길을 더욱 자주 밟고 싶다는 정옥선(61)씨는 "하나로를 걸으며 마음의 쉼터를 만난 거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해에는 도반들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길 발원했다는 김상덕(58)씨는 "하나로는 내가 걷고 있는 마음공부길 같았다"며 "끝없이 에너지를 주는 멋진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참가자들이 붙인 서원들은 일년 간 하나로를 꾸민다. 또한 하나로는 새해 첫 마음을 기억하고 돌아보기 위한 장소로 사용 될 예정이다.

하나로는 부산 한마음선원 대웅보전에서 약 2km,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는 산책로로 포행, 야외 참선 활동 및 휴식 공간을 위해 마련됐다. 약 100일 동안 부산 한마음선원 청소년,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울력하며 가꾼 길이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처음 시작한 하나로(路)는 1998년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봉행한 전국청년법회에 참가한 부산지원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조성했다. 대행 스님이 '하나로(路)'란 이름을 주신 것.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부산 한마음선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

혜도 스님은 "누구라도 오셔서 하나로를 걸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안 내소사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자연정화 캠페인 참여 학생들에게 총 500만원 전달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가 부안군내 미래세대를 후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지역사회에 미담이 되고 있다.

내소사는 구랍 23일 부안군 관내 제일고, 백산고, 부안여고에 재학중인 14명의 청소년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수혜학생들은 변산반도국립공원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부안하섬 해양생물채취 제한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과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다. 진학 스님은 "미래세대 학생 및 어려운 이웃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 관계자는 "장학금을 기탁해준 진학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는 자연정화 캠페인 참여 청소년들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지역 복지법인 바라밀 후원행사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 후원행사가 개최됐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고)은 구랍 29일 광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2014 광주전남불교사회복지 발전기금마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강화하고, 참여시설 간의 상호 원조망을 구축하고자 개최됐다.

행사는 오전 11시 기금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종무식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광주전남불교사회복지 발전기금마련 행사

양행성 광주전남지사장

반야심경으로 풀어보는 '대념처경'

미타선원 특별강좌 개최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이 핵심 구절로 대념처경의 수행법을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행복선수행학교 및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으로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대념처경'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1월 15일 강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총 6강이며 매주 목요일 주간반은 오후 2시, 야간반 오후 7시 30분에 각각 개설된다.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6만원,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 참가자는 3만원이다. (051)253-8687~8 하성미 기자

차향으로 나누는 자비 나눔… 용호복지관 하루찻집

연말을 맞아 일일 찻집으로 자비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구랍 2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회 자비나눔 하루찻집을 개최했다.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독거 노인들의 겨울 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일 찻집은 문수사, 동명불원, 성암사, 무문홍법사 등 남구불교연합 소속의 59개의 사찰이 주축으로 열렸다. 여기에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남구지역의 상가 및 병원 등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후원해 따뜻함을 더했다. 이날 모인 모연금은 복지기관들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향 될 예정이다.


남구불교연합회 주최 일일찻집 자비나눔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차를 만들고 있다.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역 사회에 구현하고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일일 찻집을 개최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것으로 공덕을 쌓고 정진과 보살행 실천을 다지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무문 홍법사 주지 호명 스님, 부산 남구갑 김정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1023호에 나간 '정암사 신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위촉' 기사에서 정암사를 **청암사**(주지 지암)로 교정합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8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 이상) 정가 5,000원
• 68cm×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얀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초특급 + 3대옵션 포함) 방콕/파타야 5일
- (사찰순례) 대만 5일
- (초특급 3대성지 + 타지마할 + 자이푸르) 인도 8일
  매주 일/금요일 출발가능



since1994 마하연투어
문의처 : 02)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1,490,000	6일 매주 출발가능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1,990,000	6일	출발일 : 2월16,27,3월17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 2월10,25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해/항주	6일	출발일:3월11,26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5월27일
[문수도량] 태원/오대산	5일	출발일: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출발일:2월12일
하와이 5일	매주 출발가능	
동유럽 3개국 9일	매주 출발가능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백초스님의
핵심래정택일지
乙未年 을미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 매일 운세 보는 법 공개!!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베스트셀러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4×6배판/ 칼라제본/ 458쪽/ 정가 25,000원
문고판(포켓용)/ 칼라제본/ 458쪽/ 정가 13,000원

(포켓용)



베스트셀러 진입!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백초율력학당 도서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정가 20,000원 상당의 『한 눈에 쉽게 보는 백초귀장술 원도형』을 무료로 드립니다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새해 문화재 복원 · 지킴이 활동 확대된다

국회 입법 및 문화재청의 활성화 계획 이어져

2014년 1월 8일,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사의 한 획을 긋는 행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의 '한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인 라이엇게임즈이 미국 버지니아주 허미티지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불화를 환수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환수 성과를 이뤘다는 점과 외국계 기업이 문화재 반환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해에는 이러한 문화재 환수와 복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보다 활발히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구랍 30일 2014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2015년 사업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은 2005년부터 개인과 가족, NGO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호 국민참여운동이다. 불교계에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도 포함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문화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 문화 한 지킴이' 사업은 10년간 50개 기업이 참여해 160억 여원의 후원과 연간 4만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2014년만해도 총 17억 8000만원의 후원과 4500명이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새해에는 대국민 서비스인 문화유산 3.0의 본격 실시와 함께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계와도 적극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3.0 등 사업 확대

불교계와 협력모델 구축 예정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발의도



진주중학교 중앙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학생들의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 모습.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3.0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의 관리와 복원이 체계화되는 상황에서 입법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48명과 함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주지역은 황룡사를 비롯해 신라동궁과 월지 등 정비대상이 산적한 상황으로 '신라왕경 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대통령 소속 정비위원회 구성과 함께 연구 · 지원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도 최근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 법안은 고도보존 육성과 관련한 중앙심의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사 · 연구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건축의 원형을 보존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용문사 대웅전 · 파계사 원통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랍 29일 '남해 용문사 대웅전'과 '대구 파계사 원통전'을 보물 제1849호와 제1850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문화재청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의 장엄이 화려해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또, "대구 파계사 원통전은 고식의 기단 등 1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식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어 건축 · 역사 ·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울주 영축사지, 가람배치 윤곽 드러나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구랍 23일 울주군 율리 영축사지(울산시 기념물 제24호)에 대한 3차 학술발굴조사 결과 발표회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강당지(講堂址)를 확인해 전체 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축사(靈鷲寺)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이번 강당지 확인으로 영축사는 강당과 금당(金堂, 대웅전), 동 · 서탑, 중문(中門), 회랑(回廊)으로 이뤄졌다. 강당지는 금당, 중문과 함께 동일한 남북 중심축에 있으며, 금당지 중심에서 북쪽으로 26.9m 떨어져 있다. 강당지 구조는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규모는 동서 20.7m, 남북 8.9m로 측정됐다. 강당지 동쪽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 구조의 부속건물지 2동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확인됐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금강아카데미, 티벳어 강좌 개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 과정으로 금강아카데미 제7회 불교고전강좌 '따시델레 티벳어'를 개최한다.

티벳어 강좌는 초급반과 강독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급반은 매일 오전 9시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지도하에 'Michael Hahn의 문법서' 강좌가, 강독반은 오후 2시 김성철 금강대HK교수의 지도하에 '무성석 섭대승론 소지의분 역주' 강좌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30일까지다.

불교문화연구소 측은 "티벳 불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불교문화의 하나"라며 "티벳어 학습은 티벳불교르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041)731-3628

노덕현 기자

겨울방학 맞아 풍경소리 39집 발표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9집'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39집은 추운 날씨에도 신나고 즐겁게 겨울놀이하며 봄을 기다리는 천진불들을 노래한 '추워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님의 사랑', 새하얀 눈처럼 산과 들 초목처럼 맑고 푸르른 지혜와 꿈을 찾아가는 부처님 계시는 '도솔천 이야기' 등 총 6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이 담겼다.



풍경소리는 "새하얀 눈처럼 맑은 마음, 산과 들 초목처럼 푸른 마음이 가득한 부처님 나라 도솔천으로 천진불들의 꿈과 지혜를 담아 찾아가는 겨울 방학이 되길 빌어본다"며 앨범 발매의 취지를 전했다.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온 좋은 벗 풍경소리의 작품집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선 중기 이후 부산 사찰, 승영 기능 지녀"

서치상 교수, 〈부산의 불교건축〉서 밝혀… '임진왜란 영향'

보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1717년 중수), 보물 제1771호인 장안사 대웅전(1657년 중수), 운수사 대웅전(1655년 중수). 이들 사찰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조선 중기 이후 건립된 부산지역 불교건축물들이 승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치상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사진〉는 〈부산의 불교건축〉에서 "부산의 불교문화, 특히 불교건축은 임진왜란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부산에서 본사를 이루고 있는 범어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은 왜구의 침탈이 잦았던 곳으로 비보(裨補) 사찰을 지어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는 승영사찰(僧營寺刹)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금정산성의 국청사 해월사 등 말사에도 호국불교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부산 지역에는 조선 전기의 목조건축이 전무한데 이는 왜병의 방화 때문"이라며 "조선 중기 이후 동남 해안 지역의 불전 건축은 더욱 승영사찰의 역할을 감안한 건축 방식을 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범어사는 1658년 대웅전 중수와 1694년 비로전 중수에서 가람 구조를 크게 바꾼다. 통일신라 때까지 도성 안이나 교외의 평탄지에 건립되던 평지가람과는 달리 배후의 산세를 따라 내려오는 경사지를 몇 단의 평탄지로 조성한 터에 세워졌다.

장안사 또한 자연 지세를 활용해 초입의 천왕문에서 최상단의 대웅전까지 3단의 평탄지로 구성했다. 이 밖에 운수사 복천사 만덕사지 등도 이러한 다단 구조를 띄고 있다.

서 교수는 "산지를 깎아 만든 이러한 가람구조는 중층의 불교세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방어에 유리한 이점을 지닌다"며 "이러한 불사는 전란 때 입은 상처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고자 했던 이 땅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시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묻는다

KBS '다큐 3일' 범어사 '동안거 72시간' 방영 화제



'다큐 3일'은 범어사 스님들의 동안거 중 3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물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순간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한다. 스스로를 달래며 매일 열심히 달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은 걸까?

KBS '다큐 3일'이 동안거를 시작한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당신 행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구랍 28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의 안거 생활을 3일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다.

동안거 90일 동안 일체의 외부출입을 끊고, 공양시간과 이동시간, 수면시간 외에는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철저하게 규율과 시간표대로만 움직인다. 안거를 알리는 신호탄은 다름 아닌 발우공양. 그 중에서도 강원 스님들의 안거는 눈길을 끈다. 처음으로 맞는 '안거' 생활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인 심정. 행여 어른 스님들 앞에서 실수할세라 틈만 나면 발우공양을 연습하며 만전을 기하기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해 목탁을 치며 경내를 돌아야 하는 도량석, 새벽 강풍 속에서도 곱은 손을 펴가며 제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법고와 범종 치기 등 강원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소임은 스스로의 의지와 인내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다.

제작진은 스님들에게 또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정혜숙 기자

세계불교가 하나로 뭉쳐야 부처님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지옥같은 어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불빛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Buddhist monk King Hinayana Buddhism
Buddhist monk King Mahayanist Buddhism
each nation(Country representatives) Buddhist monk King

推戴委員長 대승정 목탁 推戴委 副委員長 불원

세계불교법왕청 直屬 團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 총재 혜월. 회장 혜선. 수석 현덕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 총재 불원. 부총재 청광. 회장 법상. 수석 청운 高僧長老團 – 총재 성각. 회장 정오. 수석
元老長老團 – 총재 혜승. 회장 도언. 수석 대경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 총재 남륜. 회장 고산 제1수석 돈조. 제2수석 성군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 총재 박혜정. 회장 제성. 수석 도암
奉行委員長 – 조향 企劃本部長 – 현성 組織委員長 – 대붕 禮敬儀典院長 – 구암

內閣 首班 內閣 副 總理 / 女性分科委員會 特命全權 大使 在家 分科 委員會

중앙정부 각 부 장관 〈무순〉
불원 조향 혜승 대붕 혜선 진성 대풍 법상 정오 혜월 성각 도암 도경 도명 도일 도암 도언 돈조 제성 혜정 무령 무산 구암 남륜 능허 지현 도형 동월 법광 보명 원광 청운 고산 석담 선명 영각 성군 송몽 심오 혜원 법성 송운 연아 상운 청광 대연 현담 현덕 법주 법승 법지 법천 현덕2 혜상 법상2 / 기획1실장 도원 기획2실장 경덕

국내외에서 봉사할 불자 붓다 봉사단 여성분과위원 수시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0733-5665 H.P 011-229-6061 팩스 : 02)733-5671

염불·진언이 쌀 수확량 높인다?

중국 남동부 푸젠성, 벼농사에 불교음악 들려줘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 마음도 좋아지고 의식도 좋아진다. 음악을 좋아한 중국의 성인 공자는 음악으로 덕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연구결과에서는 음악이 두뇌 능력을 강화해 읽기와 말하기, 외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남동부 푸젠성(福建省, 복건성)에서는 음악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에 착안, 식물에게도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생산량을 높여 눈길을 끈다.

부디스트도어인터내셔널(Buddhistdoor Internaional)은 "중국 푸젠성 리앙샨 주민들은 벼에 불교음악을 들려줬더니 수확량이 전년대비 15%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26.7헥타르의 논에 설치된 연꽃 모양의 스피커를 통해 진언과 부드러운 선율의 염불을 들려주었다. 그 결과 벼의 낱알의 크기가 더 커지고 벼를 갉아 먹는 해충들도 음악을 틀어놓은 논에서는 벼를 갉아먹지 않고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 논으로 옮겨갔다.

중국농업학과 연구자들은 "진언과 같은 특별한 음파(音波)는 공명(共鳴)을 일으켜 식물 잎의 숨구멍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중국 푸젠성 리앙샨 주민들은 벼에 진언과 같은 불교음악을 들려주어 수확량을 전년대비 15% 증가시켰다. 사진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중국인들.

부드러운 선율의 염불 들려주니
해충들 음악 없는 논으로 옮겨
"진언과 같은 음파는 공명 일으켜
식물이 더 많은 햇빛 흡수하게 해"

그러나 음악을 들려준다고 식물의 생산성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한 농업관리인은 "특정한 음악만이 이런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음악은 성장을 돕지만 록(Rock)음악은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저명한 정원사인 크리스 비어드쇼는 2013년 온실 4개에 심은 식물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된 실험을 한 결과 서로 다른 유형의 음악들은 식물 성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 비어드쇼는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 요란한 소음과 같은 음악을 들은 식물은 키는 가장 작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가장 좋았다. 그리고 클래식과 같이 고전음악을 들은 식물은 음악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란 식물보다 키는 다소 작았으나 더 많은 꽃을 피웠고 병충해도 더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악을 활용한 식물 생산성에 관한 다양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전의 긍정적인 구절이나, 염불을 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 들려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F.T.트래버스 박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읽어주면 그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생리기능이 초월명상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트래버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구절인데도 현대 언어로 읽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들의 이 같은 현상은 1973년에 발간된 책 〈식물들의 비밀스러운 생활(The secret life of plants)〉에서 "식물들은 뇌나 신경조직이 없지만, 심장박동 기록기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식물들이 유형(sentient), 즉 지각력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한다.

부디스트도어인터내셔널은 "대부분의 불교 종파에서 식물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유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이번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며 "중세 일본 조동종 개조인 도겐 선사가 '풀, 나무, 땅들은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중생(sentient being)이다. 중생이기에 불성을 갖고 있다' 고 말한 법문을 새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캠핑으로 '게임 중독' 막는다

쿠알라룸푸르 불교학자들, 2박 3일 캠핑 프로그램 진행



나란다 불교학회의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2박 3일간 함께 할 팀을 결성하고, 해맑게 웃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불교학자들이 비디오 게임 중독에 푹 빠진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나섰다.

〈The Star〉지는 "나란다 불교학회(Nalanda Buddhist Society)가 비디오 게임 중독 위험이 높은 9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 휴일마다 2박 3일 간의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란다 불교학회 탄호순(Tan Ho Soon) 학회장은 "아이들이 건전한 휴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매 캠프마다 2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게 될 '캠핑 프로그램'에서 연민과 자비에 근거해 개발한 놀이문화를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9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참여할 캠핑 프로그램은 팀별 활동으로 진행되며, '숲속에 앉아 명상하기', '자연에서 동물 관찰하기', '팀별로 띄어놓은 풍선 높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호수에서 많은 새를 보면서 선생님에게 생소한 새의 이름을 배웠다"는 리시우이(Lee Xiu Yi · 11) 군은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보지 못했던 물총새, 펠리컨, 홍학 등을 직접 보게 되어서 좋았다"며 "저녁에 선생님이 들려주실 '부처님 이야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짧은 캠핑이었지만 마음의 평온과 불교의 미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용 차우스에른(Yong Chow Sern · 12) 양은 "집에서 산만하다는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캠프에서 배운 데로 집에서도 생활한다면, 그런 꾸지람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캠핑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옹 칭 사운(Ong Ching Saun · 33) 박사는 "당초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거리를 쉽게 찾아내고 즐기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아이들의 게임 중독은 아이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게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미래 걱정된다"

12월 23~28일 남인 문곳 간덴사원서 법회 중 발언

"당신에게 붓다의 가피란 과연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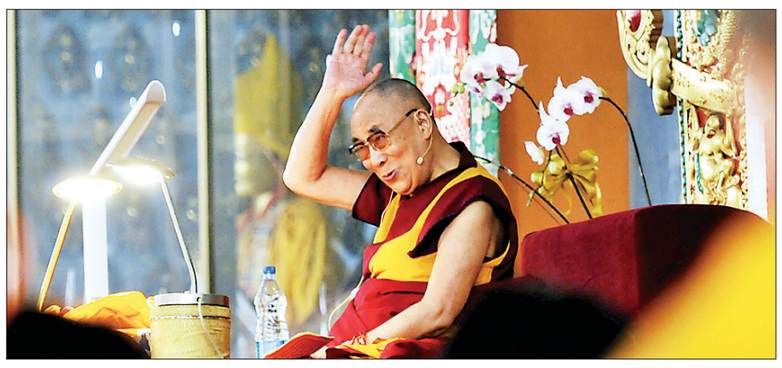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라마는 12월 23~28일 남인도 문곳(mundgod) 티베트 불교 겔룩파 산하 간덴 장체사원에서 보리도차제론(람림) 법회를 주관했다. 달라이라마는 23일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후대 달라이라마 환생 제도의 지속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후대 달라이라마 옹립에 관한 현안은 이미 지난 8월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법문 당시 외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 소속 승려 4만여 명이 모인 법회 장에서 달라이라마 본인이 직접 후대 달라이라마 환생제도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가짜이며 실제 달라이라마는 중국 본토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불교도들의 진정한 소명만이 원만히 15대 달라이라마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겔룩파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반 달라이라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슉덴'의 경우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승원 교육 체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현 14대 달라이라마야말로 역대 달라이라마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많은 불교도들과 지식인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현재의 달라이라마가 입멸한 후, 후대 15대 달라이라마의 역량이 미약하여 악명을 남기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달라이라마의 계보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본인은 그것이 진심으로 우려가 되는 바 달라이라마 환생제도를 14대로 끝내는 것 또한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신중히 거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 옹립은 티베트 겔룩파에서 이어져 온 고유의 환생제도로서 까규파의 전통에서 차용되었다. 티베트 불교의 승왕을 의미하는 달라이라마는 겔룩의 3대 사원인 대붕 간덴 세라의 사원장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티베트 민족을 수호하는 정신적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불교를 상징하는 황색 모자를 비유하며 티베트 불교 내의 자정 쇄신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바다와 같은 지혜를 지닌 스승'을 의미하며 몽골의 황제 알탄 칸이 3대 대붕사원의 사원장에게 존경의 의미로 수여한 것이다. 3대 대붕사원장은 본인이 달라이라마의 호를 처음 수여 받았으나 본인을 1대로 칭하지 않고 본인의 역대 2대 스승에게 존경의 의미로서 달라이라마 호를 각각 올렸다.

현 14대 달라이라마는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항한 라싸에서의 민중봉기를 시점으로 인도에 망명하여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370여 년간 이어져 온 티베트의 정교일치 제도 간덴포당을 청산한 달라이라마는 현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 문곳=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밤새 불 밝혀 성불한 스님 기념

12월 16일은 티베트력 10월 25일으로 티베트 불교(라마교)의 '란덩제(燃燈節, 등을 달고 불을 켜는 명절)'이다. '란덩제'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格魯派)를 창시한 쭝카바(宗喀巴) 승려가 성불한 날이다. 이날, 티베트 불교 승려과 신도들은 쑤유덩(酥油燈, 티베트족의 유지방을 넣어 만든 등)에 불을 붙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불을 밝혀 성불한 승려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혜와 행복을 기원한다. 라싸 다자오쓰의 한 승려가 망원경 모양 관악기인 둥첸(티베트식의 긴 나팔)을 불고 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편역

붓다의 가르침 無常 “모든 것 변화한다”

2. 부처님의 인간음미(人間吟味)

부처님의 인간분석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법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위에서부터의 불교파악이라기 보다,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불교 이해의 길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신행을 위해서, 먼저 차분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시하며 깊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인색하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악(惡)은 큰 바위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결점에는 적당히 눈감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공통된 약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이 부족함을 이기며 날카로운 성찰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서 또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붓다의 가르침, 선덕(先德)의 행적이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 깊이 침잠하여 부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다 보았으며 어떻게 인간을 음미하였는가를 물어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면밀하고도 투철한 인간 분석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붓다에 있어서 인간 분석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분석의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분석은, 마치 단층사진을 보듯 각양 각색의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된 불교술어에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 이란 것도 붓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분석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다. 온(蘊)이란 요소라는 뜻이며 상응부경전의 ‘온상응(蘊相應)’ 속에 있는 여러 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를 색(色) · 수(受) · 상(相) · 행(行) · 식(識)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색’ 이란 인간의 육체 즉 물질적 요소이다. 수(느끼는 작용)와 상(표상 작용)과 행(의지 작용)과 식(의식 작용)은 정신적 요소이며 인간이란 이러한 다섯 개의 요소(오온)가 모여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분석의 방법은 말하자면 인간의 개체적 단위에 관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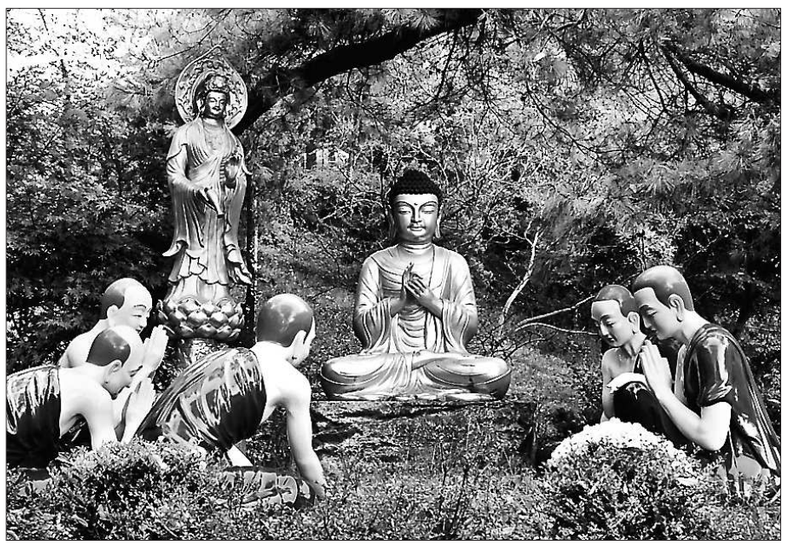
같은 상응부 경전의 ‘육처상응’ 가운데 한 경에서 붓다는 비구들을 위해서 일체(존재 일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안(眼)과 색(色)이니라. 이(耳)와 성(聲)이니라. 비(鼻)와 향(香)이니라. 설(舌)과 미(味)이니라. 신(身)과 촉(觸)이니라. 의(意)와 법(法)이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일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일체 이외에 다른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연설일 뿐이며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으리라.”

경전은 인식적 견지에서 말하는 존재일반의 설명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존재일반 가운데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인간을 분석하여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를 들어 그것에 의해서 인간에 갖추어진 감관과 오성의 전체를 표현하였다. 이것을 전문적 불교 용어의 표현으로는 ‘육처(六處)’ 라고 한다.

또 잘 알려져 있는 ‘12연기(十二緣起)’ 도 또한 부처님의 분석적 성찰이 낳은 결실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기의 계열은 그 가장 간단한 것을 말하면, 무지, 집착, 괴로움의 세 가지로 이어짐이 된다.

무지에 의해서 집착이 생긴다. 집착에 의해서 노사(老死) 등 공포장애의 괴로움이 생긴다. 그것을 더 복잡하게 하여 사지(四支), 육지(六支), 구지(九支) 그리고 십이지(十二支)의 연기가 된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괴로울 수 밖에 없는 인간존재가 생겨나는 조건(그것이 연기라는 것이다)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며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수국사에 조성된 초전법륜상.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세상의 무상함을 알라고 가르쳤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관념 아닌
정확한 관찰 통해 이룬 깨달음
“모든 것은 무상함을 알아라”

투철한 인간 관찰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분석의 방법을, 교학적으로 따지며 논의한다면 자못 번잡하고 멋없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이해와 믿고 따르는 것외에는 아무 인연도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대승불교의 사람들이 전승의 불교에 고집하는 소승의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고 새로운 불교의 길을 타개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틀림없이 소승의 사람들이 명목법수(名目法數)의 번잡한 교의학(教義學)을 영위하는데 몰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여준 면밀하며 투철한 인간 분석의 목적은 물론 교의학적인 흥미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소부경전 〈자설경〉가운데에는 이러한 게(偈)가 있다.

“선(善)을 쌓는 자에게 선은 행하기 쉬우며 악을 쌓는 자에게 선은 행하기 어렵도다. 악을 쌓는 자에게는 악은 행하기 쉬우며 성자에게 악은 행하기 어렵도다.”

이 게송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감명이 없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구태여 부처님이 아니라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게송에 담겨 있는 천근의 무게에 눈뜨게 되었으며 여태까지 내가 가진 불찰에 심한 부끄러움이 들었다. 게송 안에 담긴 천근의 무게란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변화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 범부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방법은 상식적인 것이며 그 속에는 언제나 많은 모순과 애매모호함이 감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변화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상투적 상념이 내재하고 있다.

출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흔히 생각한다. 자본으로 나뉘어진 신분과 계층이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더욱이 상주불변(常住不變)의 핵심체로서 영혼에 대한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도저히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만일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은 행하기 쉬우며, 악을 쌓은 사람에게는 선은 행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도 그것은 의미없는 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투철한 관찰과 확고한 자각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눈을 뜨고 앞선 경구를 돌아볼 때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인간무상의 체득 위에

무상이란 잘 알려져 있듯 불교의 근본원리를 말하는 술어의 하나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꾸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초점을 빼놓는다면 불교는 성립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언젠가 눈꼽만한 흙을 만지며 그것을 손톱위에 얹고 비구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이만한 것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것이 있을까?”

비구들은 즉석에서 대답하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붓다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또 말하기를

“만일 이 손톱위의 흙만한 것이라도 꾸준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가르침은 성립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무상의 원리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불교의 이해와 믿음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 무상의 체득은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토대위에서 그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꽃은 떨어지고 잎도 진다. 그것도 무상의 표현이다. 그러나 비화낙엽(飛花落葉)에 무상의 도리를 보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무상의 체관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은 무상하다. 내가 변화한다. 우리들의 위에는 무엇 하나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는 길에 발길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간분석은 투철함과 세밀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히 용의주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관찰의 결과를 모두 인간 무상의 체득에 결부한다. 인간의 개체적 존재는 색 · 수 · 상 · 행 · 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물질은 무상이며 느낌은 무상이며 상상도 의지도 의식도 또한 언제나 변화한다는 것이 증명되며 가르쳐진다. 인식의 당체로서의 인간은 육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안은 무상이며 이 또한 무상이며 비도 설도 신도 또 의도 모두 무상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은 교의학적인 명목으로 본다면 번거롭고 멋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목적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다. 무상의 도리는 막연한 상식이 아닌 정밀한 관찰에 둔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앞에서 말한 〈자설경〉의 한 게송이 비로소 새로운 빛을 뿜으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애매한 상식은 물러나며 정밀한 관이 물리칠 수 없는 힘으로서 우리들을 흔들며 깨우치는 것이다. 그 결론이 바로 인간 무상이다.

우리들은 이제 석존의 이 인간분석과 해석의 방법 및 결론을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맛보며 배워보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불교의 전체 체계는 아주 새로운 매력으로서 우리들 앞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증득해야 한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 사 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 전 문 과 정 2년 • 연 구 과 정 4년 • 교수사과정 7년
- 개 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 록 금 : 년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호랑나비’로 받은 사랑 회향…

불자가수 **김흥국** (김흥국장학재단 이사장)



불자가수 김흥국 씨는 … 1959년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태어났다. 서라벌고등학교 시절 밴드부 생활을 했고, 해병대 전역후 그룹 ‘오대 장성’을 결성해 활동했다. 1985년 발라드 풍의 노래 ‘창백한 꽃잎’으로 솔로로 전향했고 1989년 3집 ‘호랑나비’를 발표 전성기를 맞았다. 1992년에는 ‘59년 왕십리’로 정통 트로트 장르까지 선보이며 인기가도를 이어나갔다. 이후 라디오 진행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월드컵 때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쳐 ‘월드컵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재는 ‘김흥국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소외 이웃에게 장학금을 전해 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김흥국의 축구이야기〉(2002년),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2005년) 등이 있으며 주요 수상으로는 MBC 10대가수상과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1989년), 국민봉사 장려상(1993년),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1996년), MBC 라디오 골든 마우스상(2010년) 등이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2000년, 새천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자 가수 김흥국 씨는 이 축제의 현장을 뒤로하고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홍련암에서 새천년을 맞아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고 있었다. 불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문득 한줄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호랑나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김 씨는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김흥국 장학재단.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5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자로서 회향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묵히 이타행을 실천해온 것이다.

바라는 바 없이 나누면 행복해요

“매년 10명~11명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으니 150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장학금 시즌이 돌아오면, 1년에 한번씩 후원금 통장을 찍어 보는데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여럿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예요. 또한 지인들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만큼 이제는 많이 알려져 든든한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법인화를 권하기도 하는데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5년 전부터는 원로가수 후원도 시작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연로하셔서 거동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쓸쓸하게 남으신 원로 가수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1년에 2명 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각종 홍보대사로도 앞장서 왔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생명나눔실천회 등 불교계 활동은 물론 독도 홍보대사, 한국자유총연맹,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 국방홍보원, 제1회 세계 해병 전우인 축제 등 다양한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지인들과 함께 방문해 승가원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고 중식 요리사를 초빙해 요리한 중국음식을 직접 배식하는 등 장애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세상과 나누는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가 자비행을 처음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구를 포기하고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해병대 전역후 보컬활동을 시작했어요. 없는 돈에 앨범도 몇 장 냈지만 별로 주목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제게 음악을 가르쳐주었던 선배의 딸 정아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돈이 많지 않을 때였지만 먹을 거 사가서 노래도 불러주곤 했는데 정아가 너무 좋아했어요. 당시, 배따라기 이혜민 씨가 만든 ‘정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금 공연도 다녔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인간시대에 ‘정아의 겨울 일기’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방영되기도 했어요.”

이후 그는 이혜민 씨가 작사작곡한 ‘호랑나비’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주를 이루던 가요시장에서 호랑나비는 신선한 가사와 특이한 모션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았다. ‘호랑나비의 강타’라고 할 만큼 80년대 후반 가요계를 휩쓸었던 그는 호랑나비로 ‘10대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눈 뜨고 일어나보니 스타가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불심을 심어준 ‘어머니’

호랑나비 히트 이후 라디오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수는 물론 방송인으로서의 자질도 인정받게 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저는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져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 서라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서라벌 예대 선배들의 축제 공연을 보게 됐어요. 또다른 세상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시면서 어렵게 6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칭찬을 많이해주셨어요. 가난해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늘 밝고 긍정적이라며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거라 말씀하시며 늘 용기를 주셨죠.”

“호랑나비 히트는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조언으로
90년대 불자가수 초대 회장직 역임
군부대 · 교도소 등 위문공연 ‘음성포교’

2000년 김흥국 장학재단 설립하고
지금까지 150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5년전부터 원로가수 후원금 전달도

2015년 신곡 ‘불타는 금요일’ 발표 예정
‘사찰 순회 노래자랑’ 등 불자가수 양성 절실

대한불자가수회 초대회장직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던 그에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라고 적극 권유했던 이도 바로 어머니였다.

“불교방송 개국을 하면서 대한불자가수회가 만들어졌고 회장직을 제안 받았어요. 당시 무명에서 벗어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여서 스케줄도 바빴고 더구나 30대 초반의 제가 회장직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호랑나비가 잘 된 건 네 덕이 아니라 부처님 공덕이다. 내가 전국 사찰 돌면서 기도 많이 했다. 모두가 부처님 세상 만드는 좋은 기회이자 더 큰 사람 되라고 부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라’며 적극 권하셨죠. 어머니께서는 늘 부처님 백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불자가수회 초대회장은 물론, 4대와 9대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9대 회장 취임 당시에는 상임부회장으로 가수 이승철이 자문위원으로 엄정화, 김민종, 옥주현, 장윤정 등 유명 가수들과 함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군부대와 전국 교도소 위문공연, 불우이웃 돕기와 일일찻집 등을 하며 이웃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1990대 초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해 불교음악을 공부하기도 한 그는 여전히 음악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불자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불교 방송 매체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충분히 불자가수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방송에서 버스 한 대 정도만 제공해주고 불자가수들 태워서 전국 산사를 돌면서 산사음악회나 사찰노래자랑을 하면 신도님들도 좋아할 것이고 불자가수들도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겠죠. 음악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도 방송국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불교 관련 방송 매체들이 이런 점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그를 불자로 키워준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된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 없이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동네 잔치도 해드리고 이제는 마음껏 쉬시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를 성북구 미타사라는 절에 모셔서 어머니도 그쪽에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심이 깊으셨던 어머니는 자신을 화장해서 뿌려 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죠. 어머니의 유훈에 따라 미타사에서 49재를 마치고 인연이 있던 속리산 성불사에서 탈상을 했어요. 당시 집전을 진행했던 스님께서는 이제 어머니와의 인연이 다했으니 잘 보내드리고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심어주신 불성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는 나의 힘

김흥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축구다. 한때 축구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영원한 응원단장으로 남았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봉은사에서 2002배를 하며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해 5시간 동안 2002배를 했죠. 스님한테 죽비로 맞아가면서 2002배를 힘들게 마쳤아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7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동안 그는 빠짐없이 응원을 다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축구 선수 가족들도 이렇게 연속해서 월드컵 응원을 다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저는 방송을 포기하면서까지 월드컵 응원을 다녔어요. 물론 아내한테 혼도 났죠. ‘꼭 당신이 가야 하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어요. 대표팀을 응원하고 우리 축구를 응원하는 일이 정말 신나고 보람되고 좋아요. 또 선수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어려운 이웃에 장학금 전달 15년



김흥국 씨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15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사진은 15회 장학금 전달식.



축구선수 박지성 씨에게 선물 받은 축구 슈즈와 공을 경매에 내놓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 출판기념 사인회.



SBS 라디오 진행 장면



승가원 회원들에게 짜장면 보시하며 웃고 있는 김흥국 씨

들 중에 불자들이 있다면 제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저는 국내 팬들이 우리 선수들 성적을 갖고 비난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실 7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말이죠. 이제는 제가 안 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생길 정도로 영원한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축구 응원으로 그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자 새누리당 의원이던 정몽준 씨와 인연을 맺었고 오랜 시간 우정을 다져왔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한때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가 한창 MBC 라디오 '2시 만세' 를 진행하던 중 정치적 이유로 하차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2시대 시청률을 장악해오던 MBC가 SBS에서 밀리면서 오후 2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다시 불렀어요. 저는 다른 방송을 접고 MBC로 다시 오게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개편 시기도 아닌 때에 하차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황당했죠. 저는 다음 개편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시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하던 때인지라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한 명의 정치인과 오랜 친분이 정치적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런 이유로 느닷없이 하차 명령을 받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였죠."

당시 김 씨는 삭발을 감행했다. 대구 남지장사 주지 각운 스님이 직접 삭발식을 진행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주변 사람들이 진행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걱정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삭발을 감행했죠. 기자들한테 앞으로 흥국사 나비 스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어요."

그는 1996년과 1999년 MBC 연기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제1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라디오진행상, MBC 라디오 골든 마우스상까지 받을만큼 진행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렇게 아쉽게 라디오를 떠났지만 지금도 가장 하고 싶은 방송이 라디오 진행이라고 한다. "불교방송 개국 당시에는 108가요라는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후 각종 공중파 라디오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라디오는 제 고향 같은 곳이예요.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진행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순회하며 교민초청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교민들과 만나 공연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한다. "교민들이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 해주셨어요. 제 노래를 듣고 고국의 향수를 느낀다고 좋아하셨죠." 그는 해외에서도 한국 사찰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는 제 딸아이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근처에 절이 없어요. 아내와 딸은 교회는 못가니 사람도 못 사귀고 집에만 있는데 제가 경전 가져다주면 읽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교포들이 갈만한 절이 많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한국 사찰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불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며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새해에는 신곡 '불타는 금요일' 로 다시 대중들을 찾아온다는 불자가수 김흥국 씨는 신곡으로 대한민국을 '불금' 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

성탄절을 앞두고 보은군에 있는 시골 교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 교회의 목사님과는 오랜 동안 친교를 나누고 있는 사이다. 몇 해 전 그의 교회를 방문하여 성탄 축사를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사월초파일에는 우리 절 법당에서 답례 축사를 해 주기도 했다.

이전에 살던 절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개신교, 천주교, 유교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어서 지역 교계에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나 또한 성당의 미사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도 있으며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절 입구에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이곳 사찰로 옮겨온 뒤로도 타 종교지도자들과 꾸준히 왕래하며 지낸다. 올해 봄에는 시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의 별장에서 연꽃 몇 포기를 얻어 와사연못에 심었다. 그 목사님은 가을에 이곳에 들러 나물 비빔밥 맛을 보고 갔다. 이렇게 서로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고 싶기 때문이다.

10여 전에 이웃 교계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종교인 사랑방' 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 모임에는 목사, 신부, 정녀, 전도사 등이 참여하는데 사찰을 비롯하여 교회와 성당에서 윤번제로 식사를 준비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성격의 모임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형식과 권위보다는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종교 간의 갈등 요인이 생기면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4대 종교가 주관하여 평화음악회도 개최한 바 있다.

나는 항상 종교의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소통될 수 있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종교는 아집과 극단이 되기 쉽다. 즉 진리는 사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편견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신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교회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구원은 교회 밖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절에 나오지 않더라도 복 짓는 행위를 했으면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착한 행위를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참다운 진리다. 이것은 신앙이전에 어떤 인과율이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도술이나 권능이 아니라 온전한 상식과 원칙이다. 이러하므로 진리는 절이든 교회든 따지지 않고 통용되어야 마땅하다. 성숙된 종교인의 자세는 우주의 질서에 동참하면서 보다 따스해지고 선해지는 것이다.

우리 절 앞집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처음 불사를 할 때 달갑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이웃이라서 마주보면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있지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시험 당할까봐서 기독교 방송을 틀기도하고 십자가를 크게 붙이기도 하지만 나와 신도들은 개의치 않고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 쪽이 찬송가 내용이 거슬리듯 그 사람들도 목탁소리와 단청색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다. 그나마 절에 와서 시비를 걸거나 방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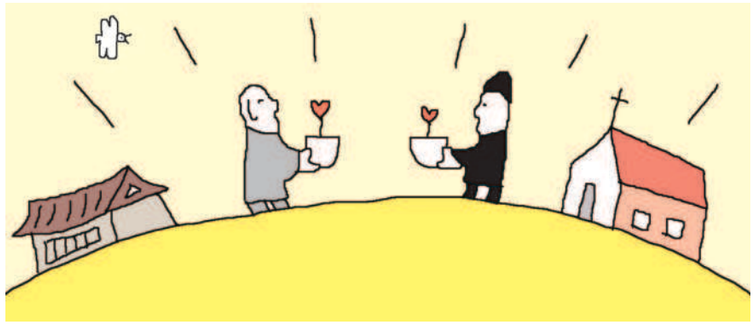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나는 앞 집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저 상식과 원칙을 지닌 이웃종교인으로 인정을 느끼며 지내고 싶을 뿐이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열 가지 선물

성담스님의 확인하는 자녀교육

성담 스님 지음 | 셀프컬쳐리서치 펴냄 | 1만5천원



꼭 알아두어야 할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 먼저 생겼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학교이다. 한마디로 평생 졸업이 없는 학교다. 이 학교가 무엇일까? 저자 성담 스님은 바로 가정이라고 답한다.

이곳서 최초이자 영원한 담임 선생님은 바로 엄마라는 것이다. 어머니 뱃 속부터 엄마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어가며 아이는 배운다. 아버지 역시 살아있는 역사이며 평생의 멘토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를 키워낼 방법을 밖에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세상에 초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이 초대한 자녀를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 책은 부모가 세상에 초대한 손님, 자녀를 모시고 대접할 때 주어야 할, 그리고 줄 수 있는 열 가지 선물을 일러줍니다. 이 선물로 당신이 초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때, 당신의 삶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보통의 교육과 관련된 책이라면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할 뿐 부모가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를 잘 키워 내는 것은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라길 바라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줄 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덕분에 존재함'을 제대로 깨우치면 우리가 소위 '나'라고 부르는 것이 사라진다. 행복하게 해야 할 자신이 사라지며 이미 행복한 자기를 발견한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는 행복에 목매는 대신 행복을 나누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담 스님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늘 세상이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하다못해 자신도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며 '힐링'이 유행인 세상에 성담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그 품은 뜻은 가히 '혁명'이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자기를 발견하면 삶을 대하는 사람의 개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삶은 이제 부족하고 잘못되어 채우고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여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어둠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어둠을 없애려는 생각과 행동은 그림자와 싸우는 개의 그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이에게 더는 자유라는 말조차 필요 없듯이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행복하기 때문이다. 성담스님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삶의 진리는 삶에 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성담스님은 삶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다. 또, 삶을 열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정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삶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멘토
행복 위해선 기술이 필요
"삶의 진리는 삶 속에 있어"

이러한 활동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 빛이 나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명품말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래가길 원한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벗기 전에 세상 곳곳에서 세상의 스승이 되어 사람들을 도울 이를 적어도 일만 명은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국사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도우려면 최소한 한나라의 스승이 될 역량과 성품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 생각할까? 이에 대해 성담 스님은 스스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한다. 가장 낮은 데서 사람을 돕겠다는 그의 의지이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래야 한다'하고 늘 따지고 산다. 그리고 따질 수 없으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도 기술이 필요하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말이다.

성담 스님은 행복을 위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 행복기술 10가지를 정리했다. 자립심, 자존감, 인연, 좋은 습관, 대화의 기술, 상호존중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금산 효심사 주지인 성담 스님은 전국으로 행복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삶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의 명쾌한 설법은 듣는 이가 즉시 깨닫는다고 하여 즉각(卽覺)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최근 제자양성을 위한 명품국사관을 완공했고 그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행복기술학교도 올 1월에 시작한다. 효심사 공식카페 cafe.naver.com/hyosimsa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성담 스님은?
2012년부터 불교방송 BBS 〈마음의 향기, 5분 설법〉를 시작으로 방송활동을 해왔다. 이후 불교TV에서〈행복19지혜축제〉〈성담스님의 덕분입니다〉〈천안통〉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저서로는〈행복119〉〈풋과일이 떫은맛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내일은 없다〉〈당신의 길, 길 위의 당신〉〈미리하는 인생공부〉〈확인하는 성공습관〉〈확인하는 자녀교육〉〈확인하는 부자연습〉등이 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 스님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 2천원



"혼자 있으면 혼자여서 좋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좋고, 애가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 돌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호미를 가져와서 돌멩이를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오늘 걸려서 넘어진 것이 잘 넘어진 것이 됩니다. 안 넘어졌으면 그 돌멩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넘어진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 법문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나온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책은 참자유, 참행복을 찾으려면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쳐야 한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선사들과 이웃들, 법륜 스님의 수행담을 통해 친근하게 전한다.

2012년 국내 300회 강연뿐만 아니라 2014년 세계 100회 즉문즉설 강연을 통해 전 세계로 직접 찾아가 사람들의 인생 고민을 직접 만난 법륜 스님.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 책〈지금 여기, 깨어있기〉를 펴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법륜 스님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깨달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부처님의 삶, 선사들의 깨침의 이야기는 이제 법륜 스님 자신의 수행담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을 차례다.

"네가 누구냐?" "왜 네 것이냐?"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한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는 행복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는!' 하고 살았지만 정작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한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 거야!' 하고 살았는데 "왜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모른다.

법륜 스님이 전하는 수행담
생생한 인생 고민 해결법 제시

우선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점검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고민거리가 대부분은 해결된다. 이제는 집중해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어서 언제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한다.

법륜 스님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법륜 스님은 자기가 단도직입으로 살핀다면 인생살이가 절대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님은 "지금 행복해야 한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수행해서 죽기 전에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된다."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수당시대에 탄생한 삼계교… 자장율사 등에 의해 신라로 전해져

삼계교 사상연구

법공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3천원



불교 역사 속에서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말법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수당 시기에는 말법시대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수나라 때 신행(信行, 540~594년)에 의해서 창시된 삼계교(三階敎)이다.

이 책은 삼계종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교학과 실천을 겸비한 뛰어난 종파였던 삼계교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실천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삼계교를 창시한 신행의 사상과 실천 및 활동이 후대까지 미치게 되었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민중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실천행으로서 무진장원을 설립한 배경과 활동, 그리고 이러한 민중을 위한 혁신적 열풍이 자장과 신방에 의해 신라로 입수되어 어떻게 당시 한반도의 정치와 종교, 사회적 지형에 파급효과를 낳았는가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 민중성으로 인해 탄압을 받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삼계교가 당시의 문학과 예술, 특히 소설이나 미술사적인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장들을 살펴보면 제1장 〈삼계교와 정토교〉에서는 우선 신행과 교류했다고 추정되는 도작 시대의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정토종을 정립한 도작은 신행과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의 약시피기(約時被機) 사상이 신행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역시 신행의 근기(機)에 대한 견해를 회감의 〈군의론〉과 관계가 있음을 논증한다.

제2장 〈삼계교와 지장신앙〉에서는 왜 삼계교가 '지장교'로까지 불리어졌던가를 개교 이래의 경전인 〈지장십륜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삼계교가 원하던 '말법관'에 의한 악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종치가 〈십륜경〉의 이념과 합치됨을 확인한다. 여기서 특히 삼계사인 신라 신방과의 관계를 〈삼국유사〉 등의 자료를 통해 깊게 고찰함으로써 신라불교에 끼친 삼계교의 영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제4장 〈삼계교와 유마경 사상〉에서는 먼저 신행에 의한 〈유마경〉 계보의 관계를 지론종 남도파와의 계보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유마경〉 〈문수사리문질품〉의 상악아정(常樂我淨)이 신행의 〈신행유문〉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들어, 그것이 실천적인 '무진장행' 사상을 불러일으킨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삼계교의 정토를 〈불국품〉의 사상과 연결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6장 〈불교의 성명과 삼계교의 칠계불명경〉에는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에서 음악의 역할을 검토하고, 불교의례의 하나로서 불경을 예송하고 죄과를 고백하는 참회의 의식이 삼계교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칠계불명경〉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삼계교가 다양한 불교의례를 통해 민중들과 어떻게 친숙하려 했던가에 대한 방법들을 고찰한다.

제7장 〈신라불교와 삼계교〉에서는 신라의 원광, 의상, 원효, 경흥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신라불교에 끼친 삼계교의 영향을 사상적, 역사적으로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다.

먼저 원광과 신행과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점찰보'를 통해 신라불교가 삼계교 교의의 실천장으로서 활약한 것을 사상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상과 삼계교의 경우는 지론종 상주 남도파의 계보를 고찰하면서 그 연관성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으며, 원효의 경우는 그의 〈금강삼매경〉의 사상이 출가와 환속을 상관하지 않음과 더불어 삼계교의 보경설의 영향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으며, 원효의 〈유심안락도〉에 일천제의 극락왕생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삼계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한다.

수나라 신행에 의해서 창시
민중의 구제 목적 실천행 강조
신라불교와 깊은 연관성 주목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불교사와의 관련으로, 신라불교가 삼계교와 관련된 것에 본격적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신라불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넓은 역사적, 사상적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삼계교는 한국불교계에선 이름조차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중국불교사 속에서 최초로 민중을 지향하고 불교의 이념을 실천적 행동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한 점만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는 현대 한국불교가 깊이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종송,향수하래,삼보통청,중단퇴공,각단불교의식,관음청, 지장청,신중청,시달림,방생의식,상용영반,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 ·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칭,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금 · 토) 오후 2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을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미륵 불사 통해 모든 중생 교화 염원

탑의 진화

㉕ 백제의 불탑(2)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소재한 미륵사지 삼탑은 현재 복원**〈사진1〉**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삼탑삼금당' 형식의 가람 형태로 중앙의 목탑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석탑이 있었다. 이처럼 3기의 불탑들이 조성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삼국유사에 기록된 백제 무왕(武王)조의 내용과 미륵사상이 도움이 된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제의 제30대 무왕의 어머니는 홀로 사는 과부로 연못 속의 용과 관계하여 서동(薯童)을 낳았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항상 마를 캐다가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선화공주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머리를 깎고 경주로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꾀어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밤마다 뭘 안고 서동방에 간다." 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노래가 신라 전역에 퍼져서 궁궐 안에까지 들리자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강력히 말해서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되었다. 궁을 떠나는 선화공주를 위하여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였다. 공주가 귀양지로 가는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공주에게 절을 하면서 모시고 가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저 우연히 믿고 좋아하니 공주는 그를 따라가면서 정을 통했다. 함께 백제로 와서 왕후가 준 금을 꺼내 놓고 살아 나갈 계획을 의논하자 서동이 "이게 무엇이오?"라고 크게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러자 공주는 "이것은 황금이니 이것을 가지면 백 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서동은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소."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중략)…백제의 무왕이 된 서동이 어느날 부인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아래 큰 연못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 이 연못 속에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며, 지명법사에게 가서 연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지명법사는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어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륵삼존의 불상을 만들고 불전, 불탑,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라 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선화공주와 무왕의 간절한 사랑이야기와 미륵사 창건에 대한 사연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일반적 가람배치는 '1탑1금당식' 인 반면 미륵사는 특이하게도 '3탑3금당식' 의 사찰구조를 띠고 있다. 왜일까? 이는 미륵삼존이 연못 속에서 출현했다는 것과 절의 이름이 '미륵사' 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풀이해볼 수 있다.

미륵신앙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이라는 제자에게 미래에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 즉, 미륵신앙은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이라는 경전에 의하며, 이 삼부경은 각각 상생(上生)과 하생(下生) 그리고 성불(成佛)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설하고 있다. 이 중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이 입멸(入滅)하여 56억7000만 년이 지난 뒤, 미륵은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여 미륵부처님이 된다. 이 때 미륵부처님은 용화삼회(龍華三會)라 하여 단지 세 번의 설법을 하신다. 그 순간 설법 장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272억이나 되는 인간들은 누구나 성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륵하생사상이다.

그렇기에 미륵부처님을 한 사람이라도

미륵사지 삼탑… 한국 유일 3탑3금당
모두 성불한다는 미륵하생사상 근거
누구나 쉽게 부처님 친견할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미륵삼존불탑' 조성

더 쉽게 친견하기위해서는 다른 부처님과는 달리 그 모습이 크고 웅장해야하며, 가부좌로 앉아있는 것 보다는 두 발로 서 있는 편이 낫다. 이것이 '미륵보살상' 은 반가부좌상이 많은 반면 대부분의 '미륵불상' 이 입상으로 조성되는 이유다.

'미륵삼존' 이란 미륵부처님과 좌우에 '법화림보살' 과 '대묘상보살' 의 세분의 존상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는 미륵삼존을 각각 세 곳의 전각에 모시고 그 앞에는 누구나 쉽게 부처님을 멀리서도 친견 할 수 있도록 '미륵삼존불탑' 을 각각 조성한 것이다. 즉 미륵삼존 중주불인 미륵부처님 앞에는 9층의 목탑을 세우고, 좌측의 법화림보살과 우측의 대묘상보살 앞에는 각각 9층의 석탑을 세워서 양쪽의 석탑 2기가 목탑을 협시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륵 불사를 통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창건된 미륵사는 약 2만평(66,000㎡)에 달하는 삼국 제일의 규모를 가진 거대한 사찰이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고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사찰은 조선시대에 폐사되어 '미륵삼존탑' 중 단지 서쪽의 석탑 하나만이 반쯤 붕괴 된 채 남아있게 된다.**〈사진2〉** 이 석탑은 많은 건축학자나 미술사학자들에 의하여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물 중에서 미륵사 석탑처럼 오로지 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9층의 빌딩을 만들어 낸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석탑이 왜 '세계7대불가사의' 에 포함되지 않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재에도 등록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미륵삼존탑은 단순히 돌을 작게 다듬어 쌓은 것이 아니라 수십 톤이 넘는 바위들을 다듬어 목조건축물을 세우듯 만든, 9층의 대 역사를 이룩해 놓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탑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반적인 목조건축물은 기둥과 보 및 도리를 기본적인 부재로 하여 부재를 서로 결구시켜 만드는 가구식(架構式)방식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미륵사의 석탑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조적식(組積式)구조 방식을 취했지만, 외형상 목조 건축물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건축적으로 놀라운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1〉
미륵사 복원 모형도(3탑3금당식 가람구조)


〈사진2〉
1910년대의 미륵사 서쪽석탑


〈사진3〉
복원된 동탑. 1993년도에 높이 27.67m, 기단 12.4m의 9층 석탑을 복원하였다.


〈사진4〉
1915년 콘크리트로 수리복원된 서쪽석탑


〈사진5〉
탑의 중심기둥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물론 오늘날에는 발달된 석재 건축 장비를 이용하여 외형을 모방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동쪽 석탑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탑의 탑상부에 놓여지는 '노반석' 등 석탑의 부재가 일부 출토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93년도에 높이 27.67m, 기단 12.4m의 9층 석탑을 복원하였다.**〈사진3〉**

하지만 기계를 이용하여 겉모습만 재현하였을 뿐, 복원조성에 따른 소요경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의 복잡한 공간 구조 설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로지 1,400년 전 불가사의한 백제인들의 기하학적 설계능력과 고도로 발달된 건축공학 기술에 미륵부처님의 출현을 간절히 염원한 장인들의 미륵신앙이 더해져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6층만 남아있던 서쪽 석탑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1915년 콘크리트로 수리**〈사진4〉**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붕괴 위험에 처해져 2001년부터 완전 해체작업에 들어가 현재는 복원이 한창이다. 해체 과정에서 680점의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009년 1월 탑의 중심기둥 중앙 사리공에서 '금제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등의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가로15.5cm 세로10.5cm의 금판에 글씨를 음각하고 붉은색을 칠해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한 금제사리봉안기**〈사진5〉**의 내용은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탑을 조성한 연유를 기록한 봉안기의 내용 중에는

(초략)…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동안 선한 인연을 쌓아 금생에 태어나 뛰어난 업적으로 만민을 보살피시고 불교의 기둥이 되셨기에 기꺼이 정재(淨財)를 보시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639년[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봉안하였다.

원하오니, 이 탑에 세세생생 영원히 공양하여 이 공덕으로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업적은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불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오니, 왕후의 몸과 마음은 거울과 같이 맑아서 온 법계(法界)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며…(중략)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성불하게 하소서!

석탑이되 목조양식 취한 건축 기법
복잡한 구조 설계 현대인도 감탄
백제인들의 높은 건축 능력과
장인들의 미륵신앙이 더해진 '수작'

라는 내용이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비교하면 창건연대가 다르고 발원자가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귀족중 하나인 사택적덕의 딸인 왕후가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학계의 연구주제로 남아있어 결말을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탑을 조성한 목적이다. 왕의 수명장수를 염원하고 정법으로 정치해 만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위로는 불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구보리하화중생' 의 목적과 모든 중생을 성불케 한다는 '자타일시성불도' 의 대원을 이루고자 불탑을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4〉 불명산 화암사 극락전

겨울 바위에 피어난 연화장세계


극락전 내부 닫집과 중앙칸 및 측면칸 천정세계다. 우물반자에는 범자종자불을 심은 육엽연화문과 선학, 일월성신 문양 등을 베풀었다. 닫집은 범어사 닫집과 닮은 빼어난 수작이다.

영혼의 씻김 있는 통과의례의 길

15세기 금석문 기록인 화암사 중창비(花巖寺重創碑)에 불명산(佛明山) 화암사를 이르기를 '고요하고 깊은 성처럼 잠겨 있어 참으로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추어 둔 복된 땅' 이라고 묘사했다. 예나 지금이나 화암사는 인적이 드문 깊은 골짜기에 있다. 불명산 시루봉 남쪽 18개의 연봉에 둘러싸인 800평 분지 속에 화암사가 입지해 있다. 화암사는 꽃의 절이다. 뛰어난 향을 지닌 단향목을 비롯해서, 겨울의 바위에 핀 연꽃(복수초) 설화에 이르기까지 깊고도 그윽한 내력을 간직한 절집이다. 화암사 가는 길은 그 자체가 한 편의 시이고, 끊어지듯 이어지는 형용이 맺고 푸는 가야금 산조가락처럼 오랜 여운을 남긴다. 그 길은 계곡의 물길과 바람이 이은 무위(無爲)의 길이고, 궁구를 추구하는 선(禪)의 길이다. 희미하고 아련한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영혼의 씻김이 있는 정화의 통과의례를 거친다. 실날처럼 간신히 이어지던 길의 끝은 수직의 폭포를 거슬러 하늘로 비상한다. 하늘이 열리고 산 속 깊은 암반 위에 연꽃 한 송이 피어 있는 형국이 나타난다. 불현전(佛現前)으로 현현하는 화엄경의 '화장세계(華藏世界)' 처럼 극적인 경로다. 기승전결 방식의 진입 동선이 대단히 깊은 인상과 감명을 자아낸다. 바위 위의 절집은 돌담의 성곽을 두른 채 깊은 고요와 선정 속에 있다. 중세 수도원 같은 폐쇄성과 내부로 향하는 단호함의 결기가 강하게 읽혀진다. 꽃비 내리는 우화루(雨花樓)의 뜨락에서도 길은 모퉁이 외길로 이어진다. 모퉁이를 돌아 '좁은 문' 으로 들어서야 한다. 외양은 견고하고 폐쇄적이며 내부는 내밀하고도 깊다. 강고한 바위 위의 성채같은 절집 분위기는 적묵당 뒤쪽 장독대 공간에 가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절집의 터가 거대한 암반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삼척 죽서루처럼 강한 바위 기운이 느껴진다. 극락전 진입은 중앙부 진입이 아니라, 우화루 서쪽 모퉁이의 문간채를 지나 적묵당 기단을 따라 진입하는 구조다. 건물의 측면 및 모서리를 따라 진입하는 독특한 동선이다. 좁은 문 너머 불명산 화장세계의 연꽃, 극락전이 있다. 화암사 극락전은 깊은 계곡 바위 위에 핀 사찰건축의 꽃, 건축의 화암(花巖)으로 빛난다.

기능과 장엄미학 갖춘 하앙구조

극락전은 종도리 묵서명 기록에 의할 때 1597년 정유재란 때 완전히 소실되어 1605년에 중수한 건물이다. 극락전이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중에서 유일하게 갖춘 하앙(下仰)구조 때문이다. 하앙은 공포와 서까래 사이에 처마와 나란히 끼운 긴 목재다. 공포를 중심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외부로는 길게 나온 지붕처마를 받쳐주고, 내부로는 중도리 등에 결구되어 지붕의 하중을 받아내는 건축부재다. 하앙에 외목도리를 얹어 처마 길이를 더 빼낼 수 있으므로 처마를 깊게 하고, 또 내부공간의 높이, 혹은 공간적 깊이감을 확장하는데 유용해 보인다. 하앙식 목조건축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두루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해서 건축사적 희소성과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화암사 극락전의 하앙구조는 대단히 미학적이며 상징성이 뛰어나다. 앞면과 뒷면의 하앙구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앞면의 하앙장치는 극락전 내부의 신령함을 표출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로 용의 형상을 취했다. 하앙의 비스듬한 목재 장치 자체가 여의주를 움켜쥐고 뛰쳐나가

단향목과 복수초 설화의 꽃 절
중세 수도원 같은 폐쇄와 고요
섬세함과 정교함이 빼어난 닫집
겨울바위 핀 연화는 관음의 자비

려는 용의 기세다. 여의보주를 취하고 처마 밑에서 여덟 용의 군집이 일제히 뛰쳐나오려는 형상은 미증유의 사례다. 구조기능의 하앙장치를 이용한 절묘한 종교장엄에의 미학적 해석능력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건물 뒤쪽 하앙은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꾸밈없이 뾰쪽하게 다듬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처럼 비스듬히 잘려진 쐐기 형태로 보다 구조적인 정형성을 갖추고 있어, 그 비대칭적 경영의 안목에 탄복할 따름이다. 목재부재질분석을 통한 연대측정에서 하앙의 목재는 소나무로 밝혀졌고, 기둥, 하앙목재 모두 1604년 겨울에 벌채한 것으로 조사되어 1605년 중수기록을 뒷받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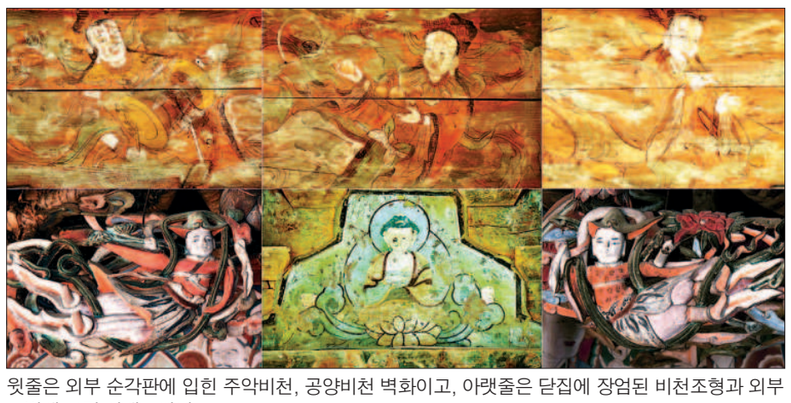
정면 순각판에 베푼 비천벽화

극락전 건물에서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현판의 독특한 구성이다. 넓은 판재로 켠 현판이 아니라, 어칸 공포 사이에 '극-락-전' 의 배치처럼 자그마한 나무판에 한 자씩 써서 끼워넣었다. 그러한 현판의 해체형식이 아니라, 밀어내고 품고, 포개서 밀어올리는 축조방식에 가깝다. 특히 외부의 사선으로 뻗친 하앙양식을 내부의 살미에서는 수평형태로 포갰다. 형상은 용이 보주를 움켜쥔 순간포착으로 외부와 동일한 모티브를 취했다. 하앙장치와 함께 내부공포의 결구와 포작방식이 그동안 익숙한 장면과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백제계 양식의 고유성과 독자성의 면면으로 와닿는다.

관음보살상, 의상스님 친견한 자태 그대로

극락전 내부장엄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닫집이다. 수직성의 위용과 장식성의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수작으로 범어사 대웅전의 닫집과 영락없이 닮았다. 형태는 물론이고 용과 봉황, 연꽃, 비천, 오색구름 등의 소재 배합에서도 서로를 분별할 경계의 문턱이 없어 보인다. 닫집건축과 조형 낱낱에 섬세함과 정교함의 공력을 쏟아부어 일체의 대상들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닫집공간은 굵은 연꽃줄기의 수직내림과 넝쿨의 새싹들이 붉은 촉을 내밀어 생명의 영속성을 담지한 대자대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똬리를 튼 거대한 용과 봉황, 오색구름이 상서로움과 신령함의 기운을 암시하고, 꽃을 든 두 비천은 부처님 공덕에 대한 예경과 찬탄을 드러내고 있다. 순환의 운동성이 담지된 독특한 모자를 쓴 채 표대자락을 몸에 휘감고, 꽃가지를 들고 가는 두 비천조형에서 환희지의 기쁨이 묻어난다.


극락전 천정에 장엄된 문양들이다. 범자종자불을 심은 육엽연화문은 통도사 대웅전과 봉정사 대웅전 문양과 닮았다.


윗줄은 외부 순각판에 입힌 주악비천, 공양비천 벽화이고, 아랫줄은 닫집에 장엄된 비천조형과 외부 포벽에 그린 여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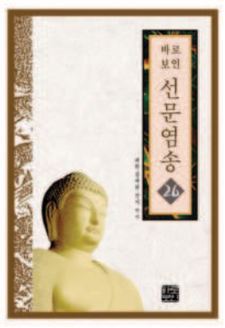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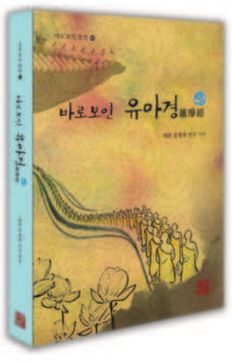

극락전 공포와 지붕 사이의 하앙구조. 국내에서 하앙장치를 갖춘 건축은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하다. 왼쪽의 용두 하앙은 앞면장치이고, 오른쪽의 빗변 하앙은 뒷면장치다.

천정엔 300년전의 단청 빛이 갤럭시의 행렬을 이루었다. 그 오래된 빛은 고요하고 내밀하게 간직해온 적밀(寂密)의 빛이다. 우리는 창을 통해 세계를 본다. 동양의 세계관에선 네모난 땅에서 둥근 하늘을 본다. 첨성대의 우물격자 너머 검은 천공에 별들이 빛나듯이, 우물천정 칸칸이 진리와 부처님의 세계가 빛난다. 사찰 천정의 직사각형 우물반자는 부처님의 세계와 진리를 관조하는 창이다. 그런데 그 창은 현상계를 비추이는 색계(色界)가 아니라 마음의 창이다. 본질적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창이다. 우물천정은 깊은 관념의 형이상학적 세계이며, 방편반야의 상징세계다. 천정의 꽃은 꽃의 현실적 관념을 버려야 비로소 보인다. 불교조형을 바라보는데 있어 연꽃인가, 모란꽃인가, 당초문인가를 분별하는 만큼 어리석은 태도는 없다. 단지 체(體)를 드러내기 위해 상(相)을 차용할 뿐이다. 따라서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다.

극락전 우물천정에 베푼 핵심문양은 여섯 연잎의 형상을 가진 육엽연화문이다. 천정의 꽃은 본질적으로 깨달음의 꽃이며, 부동의 진리이고, 부처님의 자리다. 곳곳의 육엽연화문에 범자 종자불(種字佛)을 심었다. 종자불의 양식은 양산 통도사 대웅전 천정과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천정에 심은 범자종자불 양식과 매우 닮았다. 아미타삼존불을 모신 극락전의 당호에 맞게 연화의 중앙에는 주존이신 아미타불의 종자자를 심고, 여섯 연잎에는 관세음보살의 '옴 마니 파메드 훔' 의 육자대명왕진언을 심었다. 화암사 중창비문에 따르면 극락전에 모신 관음보살은 의상스님이 도솔천을 관하면서 친견했던 수월관음의 용모와 자태 그대로의 등신불(等身佛)로 기록하고 있어 경이로움을 더한다. 겨울 바위에 피었다는 연화가 수월관음의 자비임을 이제야 알겠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서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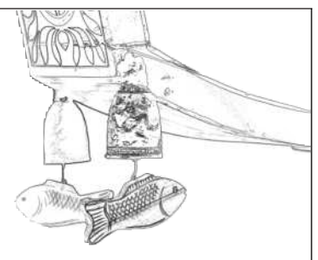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는 세상의 양식이 되거니 반드시 궁극적인
곳으로 가게 되리라. 착한 신장이 언제나
그를 돌보고 또 언제나 기뻐하네.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발명내용 및 효과
발명특허 획득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운동법. 아픈 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
네이버,다음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허준의 동의보감
(100가지 해독기술)
법 제 **유 황**
법제유황 안정성 검사필!
문의 : 삼성당 한의원
055) 972-0043, 972-0302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부처님으로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를 정립하고 신통력과 사후극락 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알리고, 현재의 기도와 수행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연구하실 분이나 불교학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태고사
자연치유 생사의 손 되어 지는 집
전생과 현생의 업장소멸로
-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
- 개인 사생활의 비밀
- 난치성 질환, 정신병, 성 마약 중독증 등...을 풀어드립니다.
010-6520-8886 법천선사
농협 302-0228-9006-71 박춘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55세 이하)
010-4415-57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사찰운영 하실 분 연락바람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60세이상)
010-3755-4242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동림사)
010-3871-3000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로단비술의 기도법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첩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 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식약처 허가 2009-00017
옻 독성 100% 제거 옻나무 +버섯
국내외 새로운 처방발명 한의학박사님들이
감탄하고 일부 한의원에서 자기원료보다
3배 비싼 본사원료 정량을 구입 처방합니다.
본사 홈피에 공개된
한의원 송장번호로 거래확인가능
◆ 동의보감 내용
옻나무 : 수족냉증 / 위장허약 /
관절에 매우 좋다.
본 개발제품은 옻나무에 버섯과 녹차를 추가하여
품질을 높인 결과 위의 내용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홈페이지 amesil.kr
본사 홈페이지를 보면 제품복용 후 건강검사에서 나쁜 혈액이 개선되는 수치표가 있습니다.
황보생약 010-5556-1526

원네스치유명상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삶에 참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법화선원에서는 원네스 깨어남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깨 어 남 여정코스
원 네 스 치유명상
쿤달리니 명상수련
영적치유 마스터
트레이너 모집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66-26
문의 : 010-4740-3001
하나됨 불교 깨어남 실천본부
하나됨 치유명상선원 혜웅 합장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되면 뒷날에 반드시 악행에 물들어 좋지 않은 이름이 세상에 퍼진다.
- 증일아함경 -

사 찰 안 내

사찰 및 토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875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등 87평
- 사찰박물관 벼락맞은 화석 등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완비
- 가액:15억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산초,제피,엉개,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구사찰 양도
- 목조법당. 요사채등건물 4동
- 토지 900㎡. 건물 200㎡
- 전망좋으며 200년된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심속 사찰
- 57평규모에 1층 요사채, 2층 법당, 마당, 창고, 도시가스 등
- 모든 설비 완비되어 있음
- 인접 시장, 교통 편리
- 최근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가까워 최상의 입지조건 갖추고 있음
- 가액 : 3억3천만원(금액협의가능)

051)412-0400
010-6768-7220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2천,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수도권
◎ 부지:18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40평,전각2채 ◎ 법당:50평,전각3
◎ 요사:60평 ◎ 요사:100평
◎ 양도:5억 ◎ 양도:16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부산시 남구 2층 건물 사찰 양도
* 2층 법당 1층 요사채660㎡. 토지약1650㎡
* 뒷편은산.바다전망.포교하기좋은사찰
* 양도금액 : 15억(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
- 주차공간 많음
- 깨끗하고 조용함
- 대 708㎡, 건평 250㎡
- 법당, 공양간, 종무소
- 가액 : 5억 5천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포교원 안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 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지하철 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3,300만원)

010-4142-690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에서 오래된 사찰 기도 많이 하는 지장도량
- 실평수 약 1,700평
- 시설 : 지장전, 산신각, 노천 지장석불, 요사채 3동 (방)10개
- 가액 : 6억 3천

010-3122-0077

포교원 안내
- 춘천 3,600평 3억 8천 전 임대지 전망좋음
- 경북 영주 3,600평 18억 사찰운영중
- 모든조건완비 대출가능 100억이상
- 수입창출가능 비교 불가한 좋은 조건 환경

010-4880-7890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 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 2동 3, 4층 법당)
- 전망: 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 위치, 10분이내 국제금융센터 인접
- 가액 : 7억 5천 주인 직접

010-4409-13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관세음, 지장, 산신, 후불, 칠성, 신중, 산신, 반야 용선 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35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766-3200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정로 645 대동1차 상가 302호
- 법당, 방 3, 공양간 넓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3927-129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 평수 : 40평, 4층 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 삼존불, 방 2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8987-2338

포교원,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농가주택 빌라
- 4층 건물 4층 24평 방 3개
- 스님 20년 거주 5층 깨끗 탁 트임 사용가능
- 노후 생활적합 현재 빈 공간 교통편리
- 즉시입주(주민 민원 없음) 불자 스님 법력따라 인영따라 번청 하는곳
- 가액 : 3천 5백

010-2599-3040
010-9787-5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66-5번지
- 총 532평중(종교부지, 308평) 요사채 55평
- 목조 전통기와 단청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 산밑에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집기일체
- 가액 : 3억 5천

010-4499-1618
(010-8664-8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월드컵대로변
- 평수 : 50평, 5층 건물중 2층
- 보유내용 : 삼존불, 신중,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답사후결정)
- 바로입주 가능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 3층 60평, 삼존불, 삼성각,
- 용왕전
- 방3칸, 공양간, 상담실
-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 월70만
-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248평 중 법당 22평
- 칠보 5존불(석가, 미타, 관음, 지장, 약사) 칠보 호신불 204불
- 시청, 은행 등 모든 관공서 도보 10분 거리
- 투자가치 높은 뒷산지상공원확정, 빌라지역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5천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000만원

010-4680-932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1, 종무소, 공양실1, 화장실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평수 : 임야 4,500평(금강송 소나무)
- 특징 : 노적봉이 있는 좌천룡 우백호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기도처
- 교통 : 동해바다와 고속도로 IC 5분거리 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평당 3만원)

010-3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대형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3분거리
- 부지 : 527평(종교 390평, 전 137평)
- 법당 : 33평(철근콘크리트 조)단청 삼존불(청동) 후불탱화, 칠성, 신중
- 요사채: 40평(방 3, 거실 1, 실내 다용도실 2)
- 기타 : 컨테이너 2동(주방, 기도실)
- 10평(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스님 건강상 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 가액: 2억 6천만원

010-2544-4848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정신과 전문의)

〈2〉 원초적 고통

자상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안자

붓다의 현실주의 전략

우리가 겪는 매일의 생활은 상처와 얼룩이 가득하다고 붓다는 가르쳤다. 이것은 참으로 옳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

고통스러운 체험을 굳이 새롭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미 고통은 삶에서 우리를 휘감고 있다. 이런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려는 의지는, 요가 수행자처럼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금욕주의자처럼 고통을 과장하거나, 또 유물론자나 일반 사람들처럼 고통을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붓다는 이런 논리를 즐거움과 고통에 모두 적용했다.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을 조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지만, 삶에 내재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들쭉날쭉하는 쾌락을 분별없이 추구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고 붓다는 가르쳤다. 이후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묘사할 때 '인욕'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세상이야말로 영적, 심리적 성장을 위해 더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현상의 허망함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드러난다. 평정심으로 이런 불안정함을 보듬고 나아갈 수 있다면 마음에서 새로운 종류의 행복이 솟아날 것이다.

둑카에 대한 변함없는 강조 때문인지 붓다의 가르침이 비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여전히 금욕주의 수행을 강조한다고 오해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붓다는 고통을 조장하는 것을 거부했다. 붓다는 항상 의사처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어떤 의사는 질병을 부인하면서 거짓 위안을 주기도 한다. 또 질병을 과장해서 치료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의사는 별로 쓸모없다. 붓다는 항상 이런 극단을 거부하고, 중도적인 치료를 꾸준히 강조했다. 유명한 어느 경전에서 붓다는, 환자의 몸에 꽂힌 독화살을 뽑는 의사에 자신을 비교했다. 붓다의 도구는 강력하다. 그러나 붓다는, 만약 화살을 뽑아서 우선 목숨을 건진다 해도 그 상처를 스스로 계속 치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청중에게 충고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상처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저 바라만 볼 뿐

불교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순전히 관찰하는 태도를 '순수한 주의(bare attention) 기울이기' 라고 부른다. 순수한 주의 기울이기 혹은 '순수한 알아차림' 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무런 반응 없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인연으로 얽힌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일어난 것들을 지각하는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명징하게 온 마음으로의식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스파이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 스파이 의식이 마음의 한구석에서 작동해, 순수한 알아차림을 때때로 유발하고, 마음과 몸의 극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느끼게 한다. 흔히 이것을 '마음챙김' 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음챙김은 급수탑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나, 깊은 환부를 파고 들어가는 외과 의사의 바늘에 비유되기도 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함께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합이야말로 순수한 알아차림의 특성이다. 그리고 수행에서는 이런 순수한 알아차림을 권한다. 순수한 알아차림에는 중도적인 절제와 금욕이라는 성질이 있다. 이기적이지 않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요청한다. 즐거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즐겁지 않은 것을 거부하지도 말라고 한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거기 머물라고 한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을 내면 성장의 필수적인 재료로 만들어버린다. 그렇다고 그 반응에 무슨 특별한 지위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단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이런 중도적인 절제와 금욕은 붓다의 정신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이것은 붓다가 6년간 숲 속 고행에서 배운 것이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은 순수한 알아차림이 아무것도 전혀 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꾸준하게 지속해서 아이와 아주 조화롭게 반응하는 부모처럼, 꾸준히 명상 수행을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적절하고 선한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지켜보며 내버려두면 마음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 사상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 달라이 라마는 바로 순수한 알아차림의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소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비난하는 태도다. 마음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비난할 범인 같은 대상을 찾도록 우리를 충동질 한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제거할 목적으로 우리 자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스스로 세상에 대적해 자아를 분열하게 만드는 태도는 단지 고통을 영속시킬 뿐이다. 붓다가 제시한 방법은 우리를 이런 태도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처럼 만든다. 엄마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지만, 붓다에게는 애석하게도 없는 요소다. 붓다가 제시한 태도를 견지하면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그 변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달성해야 하는 변화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환경을 특별한 방식으로 재조정해야만 한다.

내가 바로 나의 엄마

붓다의 이런 관점은 현대의 정신분석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임상 상황에서 아이와 엄마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실제로 관찰한 한 정신치료사가 이 점에



고통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의지는
고통서 도망치거나 금욕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는 행위
즐거움 회피하거나 분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
평정심으로 불안정 보듬고 나아가면
마음에서 새로운 행복 솟아난다

지대한 관심을 두고서 언급을 했다. 바로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아동정신분석가인 위니컷(D.W. Winnicout)인데, 그는 '아주 푸근하고 편안한' 엄마에게서 볼 수 있는 아기와의 조화로운 관계의 본질, 그의 표현을 빌리면 '원초적 모성애(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 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썼다.

『이런 상태에서 엄마는 아기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한다. 즉 아기와 일체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계발한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기본 욕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 이는 어떤 기계도 할 수 없고, 어떤 교과서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매우 넉넉하고 편안한 조건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아이들과 아주 다르다. ……이처럼 아기를 돌보는 일의 독특한 성질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기의 감각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 다시 말해 자율적 자아(autonomous ego)라고 불리는 것이 생기기 전인 초기 정서 발달 단계에서 아기는 심한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안' 이라는 단어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 단계에서 아기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강도는 불안 발작인 공황 상태의 강도와 같다. 공황 상태는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는 극도의 고통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다. 나는 여기서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두 아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 아기는 매우 넉넉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 아기가 정서적으로 빠르게 발달하는 데 방해될 만한 요인은 전혀 없다. 그래서 아기 자신의 기질이 잘 발휘됐다. 다른 아기는 편안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해, 발달이 왜곡되고 지연됐다. 이 아기에게는 근원적인 고통이 이후의 삶에 침투했다. 매우 넉넉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 엄마가 아기의 보조 자아 역할을 하고, 아기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점차 자기 나름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공통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미약한 자아는 아기의 기본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엄마의 섬세한 보살핌과 양육 아래서 발달이 촉진된다. 이를 경험하지 못한 아기는 자기 나름으로 미성숙한 자아 기능을 발달시키거나, 혼란스러운 자아를 형성한다.』

원초적 고통은 위니컷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붓다가 말한 둑카와 아주 유사하다. 위니컷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기가 스스로 감정을 체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술했다. 위니컷은 또 넉넉하고 편안한 보살핌이 없으면, 아기가 그 환경을 어떻게 느끼는지도 언급했다. 그는 공황 불안 뒤에 느껴지는 고통의 강도를 말했다. 또 자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라 했다.

이런 분노는 아기가 어둠 속에 내동댕이쳐질 때 느끼는 분노다. 위니컷은 부모라면 대부분 아기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강조했지만, 부모가 잘 보호한다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불안은 항상 존재한다.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인간관계 학파의 많은 치료사처럼 위니컷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의미' 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위니컷의 통찰은 붓다가 창안한 치료법에 숨겨진 강렬한 면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역사적 붓다가 위니컷이 자세히 설명한 원초의 고통을 실제로 겪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붓다가 깨닫고 난 다음 가르친 명상은 위니컷이 서술한 엄마의 아기 '보듬기(holding)' 의 마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음을 '보듬는 것' 이다. 붓다의 기법 중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마음챙김' 이 강조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는 '보조적 자아 기능' 의 또 다른 형태다. 붓다는 이런 보조적 자아 기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했다. 제자들은 이를 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화살을 뽑는 붓다의 비유적 가르침으로 돌아가, 진실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돌보았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나는 자아를 제거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붓다는 오히려 자아를 강화해 스스로 붕괴되지 않고 원초적 고통을 보듬는 법을 익히기를 독려했다.

고대부터 내려온 숲 속 명상 전통을 이은 위대한 스승과 함께 인도에서 수년을 보낸 내 친구가 나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앞에서 내가 말한 점을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한다. 친구는 사랑하는 스승이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인도에 갔다. 인도에서 그 위대한 스승에게 가장 헌신한 제자인 다다(Dada)의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다다가 내 친구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스승이 이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친구는 흥분했다. 스승이 남긴 것이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다다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오래된 나무 옷장문을 열었다. 그리고 맨 아래 선반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냈다. 그것은 낡고 더러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보이나요?" 제자가 내 친구에게 물었다.

"아뇨, 뭘 봐야 하죠?"

다다가 덮인 천을 벗기자 그 속에서 오래돼 낡아빠진 알루미늄 주전자가 나왔다. 인도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전자였다. 다다는 친구의 눈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스승은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다다, 안보이는데요." 라고 친구는 대답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다다는 더욱더 강렬하게 자신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고 한다. 이때 다다의 눈에는 미친 듯 휘광이 몰아쳤다고 한다.

"당신은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다다는 말했다. 다다는 주전자를 다시 천으로 감싸서 나무 옷장의 맨 아래 선반에 다시 넣었다.

친구는 불교의 혁명적인 이론에 근원을 둔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단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기만 하면 됐다. 다다가 주전자를 잡을 때 보여주었던 그 보살핌과 자상함으로 자신을 잘 보듬어 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원초적 고통으로 온통 뒤덮여 있을지라도 일상의 자아는 그 자체로 귀중하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어린이 마음거울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새해를 맞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고 자존감을 지니도록 돕기 위한 지면을 마련했다.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마음거울'을 격주로 연재한다. 본 텍스트는 어린이 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어린이 단체나 종교 단체 등에서도 토론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I am a precious being.



'자아존중감' 키우기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줄여서 '자존감' 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존중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데에는 서투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믿고 아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잘난체하거나 우쭐대는 자만심과는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획 원일훈(홍익대 교수), 정광균(철학박사), 김송묵(철학박사)
글 신연호(어린이책 작가), 김규년(공학박사), 박선아(전 울산타임즈 기자)
그림 원일훈, 김선용, 최진만
영문 Brian Zingmark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I am precious and unique in the world.

2012년 봄, 중국에서 인쇄가 잘못된 100위안(원화로 약 1만7천원)짜리 지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폐의 인물은 중국의 정치가인 마오쩌둥(1893~1976년)으로 턱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잘못된 지폐에는 왼쪽 눈 밑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찍힌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잘못 인쇄된 지폐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지폐의 값어치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비록 인쇄는 잘못되었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매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형제나 자매도 생김은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므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생각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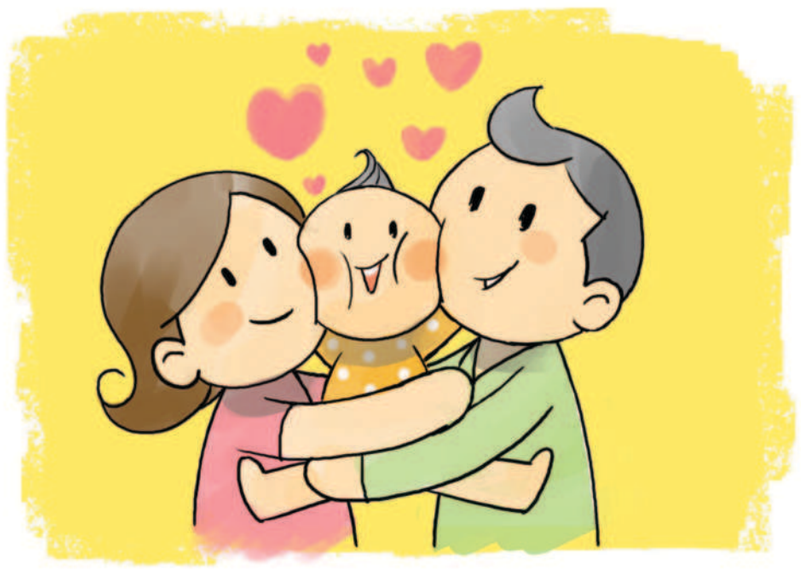
*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 혹은 부모님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나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I am growing up surrounded by love.

고려시대의 이규보(1168~1241년)는 정치가이자 매우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이규보가 남긴 많은 문학작품 가운데 '두 아이를 생각하다' 는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린 딸 하나 있는데
벌써 아버지 어머니 부를 줄 아네
내 무릎에서 옷을 끌며 애교부리고
거울을 대하면 화장을 흉내 내네
……
내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으니
이름은 삼백이고
장차 이씨 가문을 일으킬 것이네
태어나던 저녁엔 강을 놀라게 했고



태어나자마자 골격과 이마가 기이했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도 희었었지
……

한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집안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는 이렇듯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랗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 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입니다.

* 이규보의 시를 읽은 느낌이 어떤가요?
*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것을 알아요

I know that many people are protecting me so that I can have a healthy mind and body.

미국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1947~)은 백악관을 나온 후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국무장관으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힐러리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했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 운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뒤에 어린이와 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어린이 보호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996년에는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는 책을 썼는데, 이 제목은 아프리카의 속담인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에서 따왔습니다. 어린이를 제대로 보살피고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 인권이나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나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회가 보살피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어른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에 올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해 볼까요?
*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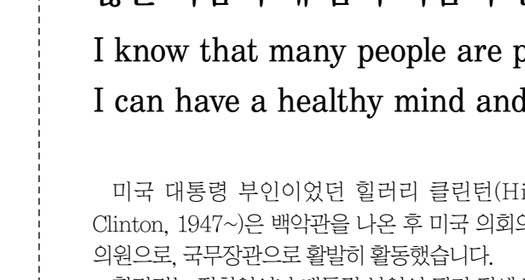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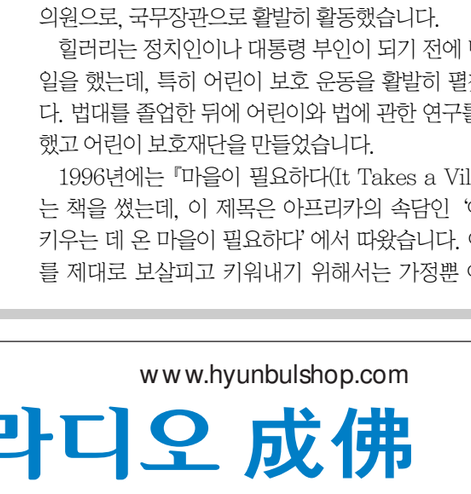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흘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어요

사회자 금주 법회부터는 담선법회식으로 진행하니 모든 불자님들께서 생활상이나 혹은 공부하시는 가운데 여쭐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우리가 한 손바닥만을 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양쪽 손바닥을 쳐야 이 소리 저 소리가 나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담선법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서두를 꺼내죠. 물론 마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나 역시도 여러분이 밥을 배불리 먹고 자유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선법회로써 서로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길을 가는 이 진리를 이해를 해야 믿는 것도 철저히 믿을 것 같습니다. 자기로부터 이 우주 천하가 생겼다는 것도 알고요,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있다는 점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생활도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모든 게 내 한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 점. 그런 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선법회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도리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도리를 취하는 것은 길을 가는 데에 손목을 잡아 주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일러 주기는 하지만, 바로 가서 느끼고 맛을 알고 먹어 봐야 안다는 그 점은 본인이 해야하지요.

하지만 마음이 좁고 넓고를 말할 때에 넓은 강은 구정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똥물이나 다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겠지만, 좁은 물에는 구정물이나 똥물이 들어가 한번 뒤집히면 가라앉기가 어렵습니다.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건드리면 금세 구정물이 되고 떠오릅니다. 적은 물 큰 물, 이것을 비유해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지혜가 넓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러지만, 또 이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공(空)에서 나오는 걸 공에다 다시 놓을 수 있는 그 지혜력, 지혜가 없다면 허공에도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듯이 그렇게 좁은 물밖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큰 물과 같이 구정물이 때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흙물이 들어가거나 똥물이 들어가도 그것을 그대로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도의, 의리를 포함해서 지혜롭게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대천세계(大千世界)의 강물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서부터 담선법회로써 우리가 서로 토론해 봅시다. 질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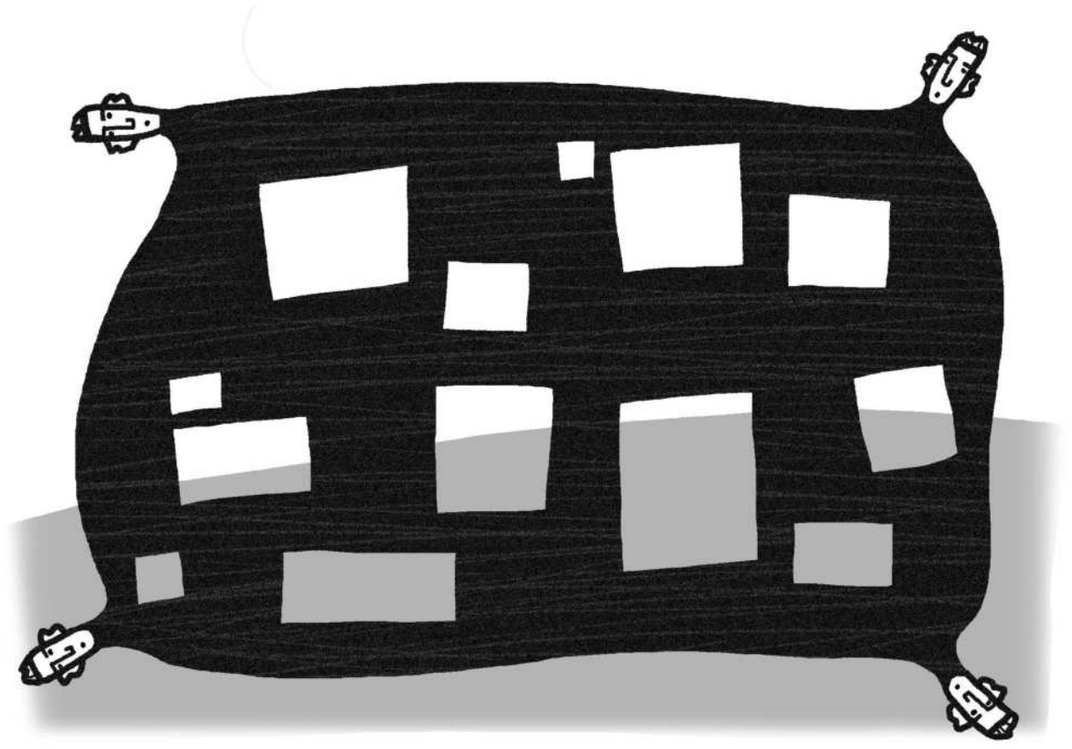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여)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제게 현재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흔히 듣고 있던 어떤 인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지, 그리고 전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큰스님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전공학이니 뭐니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토막씩 찰나찰나 넘어가니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바로 일생,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넘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그 물에서 떴다가 그 물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가라앉았다 뜨고 떴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것 밖에는, 인생이 그런 거밖에는 안 됩니다. 떴다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하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저께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늘까지 울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유해 보십시오.

내가 잘되겠다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 버리고 망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질러 놓은 일이 오늘에 닥치니까 막 울죠? 그리고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망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거죠.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진화를 해서 우리가 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창조력은 우리가 금방…. 요거를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머니 만났을 때 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의 행동과 딸로서 말이 나갑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에 의해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 만날 때하고 남편 만날 때하고 찰나에, 내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행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활 불교로써 이끌어 가려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옛 선사들처럼 낚싯밥을 던져서 하기 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뛰어들어서 같이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칠십 평생 팔십 평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만날 때의 그 모습하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찰나여서 자기 자신들은 변한 거를 모르지만 시계 초침 하나 똑똑똑똑 가는 대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금방 엄청나게 변화가 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걸 모르고 갈 뿐입니다. 찰나찰나 나투고 가는 것이죠. 화(化)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만날 때에 말과 행과 마음이 동시에 융합이 돼서 무심으로 그냥 무행을 했는데, 그렇게 한 자체와 칠십 평생이나 팔십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백 살을 살다가 죽든지 애 적에 죽었든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인연 따라서 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어머니 만날 때에, 즉 말하자면은 그 삼합(三合)이 동시에 움죽거려서 자기가 행을 하는 거.

남편 만날 때에 또다시 그것이 홀딱 바뀌어서 아내로서의 생각이 들고, 딸로서의 생각이 들거나 며느리로서의 생각이 드는 거. 며느리로 살다가 금방 아내로 살았어. 이것을 바로 윤회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축소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모르시면은. 우리가 그런 게 존재하느냐고 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니까요.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지혜가 없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좁은 마음은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어머니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하고 남편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합니다.

벌써 시계 초가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내가 변화된 거를 모르고 있을 뿐 벌써 딸이 됐다가 남의 집 며느리가 됐다가, 금방 남의 집 남편이 된 그 사이가 찰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한 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축소를 하면은 앞서의 그게 되고, 만약에 대의적으로 따진다면은 죽고 또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화나 또는 모습의 진화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까 얘기했듯 어머니 만날 때의 마음과 아버지 만날 때의 마음, 동생 만날 때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묘하고 자유스럽게 무심으로

☞ 22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놓고 믿어라!

☞ 21면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깐 우리는 90%가 부처라고 합니다. 왜 90%가 부처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벌써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 부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부처만 부처인 줄 알고 위대한 것만 위대하게 보고 낮은 건 낮게 보고서 아상을 높이고 권세를 부리고 또는 버리고 얕게 보고 이러는 까닭에 우리는 고가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그래서지요. 마음의 생동력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공해서 공심(共心)으로써 공생(共生)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양하게 능력을 쓸 때에 항상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의 생명들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한생각 낼 때에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수많은 능력이 한데 한마음에 응시 되니 한 생각에 우주 천하가 들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물건이 있고 여러분과 같이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불장군으로서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줬고,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 이 물건 이 색(色)이, 내 몸 육신이 나라고 산다면 그렇게 나라고 했으니 수많은 생명의 능력은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주지 않습니다. 무량한 발전소, 즉 비유해서 자동적으로 돼 있는 자가발전소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남에게도 전기를 넣어 줄 수가 있죠. 항상 들어오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스럽게 스위치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되는 원인도 바로, 무량한 자가발전소를 모르고 전기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기를 내가 자유스럽게 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자가발전소가 바로 나라면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널리 지혜 있게 써서 내 육신이 생기고부터 이 세상이 모두 공한 거를 알았고, 나로부터 전체가 공한 거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난 것이 바로 화두니까 그 화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고 세상의 진리를 내가 탐구하고 깨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제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믿고 일임해 놓지 않는다면 천차만별로 된 부처님의 그 광대무변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모른다면 부처님은 아마 알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부처님의 삼천 년 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는 똑같겠죠. 삼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모습이 조금 다르게 돌아갈 뿐이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 사람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달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서 저이 미쳤다고, 만날 남이 못 알아듣는 말만 한다고 이럴까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자꾸 접근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홀연히, 나중엔 나를 만나지 않을 때도 만나지 않는 대로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항상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아, 이게 공했으니까 내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내 육신과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까 주인공이야. 즉 내가 주인공이지. 모두 내가 한 거 나한테다 놔야지.' 하고서 모든 걸 놓게 됩니다.

작년의 콩씨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심어서 콩나무가 난 거죠. 그걸로 비유를 해 두고요. 그런데 콩나무가 났기 때문에 콩씨가 또 열리죠? 그 콩씨로 인해서 콩나무가 나고요. 연방 되풀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콩씨는 여차가 된 거죠. 콩씨가 있는데도 본래 콩씨가 자기한테 있는 것도 모르고 콩나무가 자기라는 겁니다. '콩나무가 자기라고 하지 말고 콩나무가 있기 때문에 콩씨가 있고 콩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있는 거니깐 둘이 아니다. 그러니 공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일임해서 놔라. 믿어라. 물러서지 마라.' 이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또 인과응보라는 것은 바로 콩나무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입니다. 콩나무가 나라고 할 때는 바람에 맞고, 모든 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으냐. 너무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끄달리기 때문에 쫄쫄이가 되죠. 사는 데 그건 부자가 못 되고 아주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생활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하고 모든 게 가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빠져 허덕이면서, 자기에게 본래 창살이 없건만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서 헤매고 돌죠. 그럴 때에 자기 마음으로 지어 놓은 업보가 바로 넝마의 차원이냐 금의 차원이냐 무쇠의 차원이냐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인연 지어 놓은 것이 깡통 인연을 지어 놨다면 깡통끼리 모여서 부딪칠 거고 넝마 인연을 지어 놓았다면 넝마끼리 모일 거고, 만약에 금의 인연을 지어 놨다면 금끼리 모일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금끼리 모이고 넝마끼리 모이고 깡통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배운 것만치 자기 차원대로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행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이런 차원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식구로서 살면서도 그렇고,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기 때문에 소리가 분잡하게 나죠. 소릴 안 내려고 가만히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금이라는 거는 조그마하면서도 항상 속에다 지니기 때문에 말도 없고 부딪칠 필요도 없고, 항상 몸에 지니지 않으면 장 속에 넣어 놓고 이러니 부딪칠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한 차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 마음으로 지어 놓은 것은 보이지 않게 받을 것이고 또 보이게 육신으로 저질렀다면 육신으로써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것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견성성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공해서 돌아가되 자기가 지어 놓은 대로 깡통이 되려면 깡통이 되고, 자기 마음먹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고 행하는 데에 달렸으니 전생 후생을 따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전생에서도 그러한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태어나서 요렇게 차원대로 모였고, 내가 지어 놓은 것만치 가지고 탤런트처럼 팔자 운명이 거기 붙어 돌아가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성' 하는데 아니 글쎄, 할아버지께서 목병을 앓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래 손주대에 손주가 목병을 앓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차원이 깡통이라면 깡통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모인 인연들이 전부 깡통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 만나서 보는 사람도 고(苦)고 당하는 사람도 고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팔자 운명도 없을 것이고 유전성도 없을 게 아닙니까. 그건 왜? 자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지마는 팔만대장경, 법구경이 다 어디 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양하게 색색 가지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법구경 아닙니까? 그 법구경을 누가 이루고 다니나요? 자기가 바로 마음을 내서 이 생명과 육신이 움죽거리고 돌아가니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주의 섭리도 다른 혹성도 은하계도 모든 게 삼각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샛별이며,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의 샛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성도 옷을 입고 있어요. 별성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별성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반사를 이루고 또 그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물에도 비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근본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비춰 줄 수도 있고, 스스로써 보이지 않는데 서로가 서로에 상응할 수 있고, 무수히 천차만별로 돼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서로 상응할 수 있고, 보이는 마음들하고도 같이 상응할 수도 있고, 모습하고도 같이 모이면서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모이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세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하나가 만약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자기 깨달은 바 없다면 모든 것이 겉돌아 가고 항상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럴 겁니다.

저런 날아다니는 새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옥수수밭의 옥수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거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몰라서 눈이 캄캄하고 귀가 먹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전생이 뭔지 후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조차 몰라서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면은 다시 모습을 바꿀 때에 마음의 차원이 만약에 넝마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렇다면은 그 차원대로 나올 것이고, 또 사람 구실을 못했다면 요다음에 좌천해서 짐승의 모습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와서도 사람 행을 한다면, 정말 참마음으로써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는 아리따운 마음을 가졌다면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고 살듯이 우리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법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바로 자비하고 자비하면서도 무서운 것을 우리는 깜박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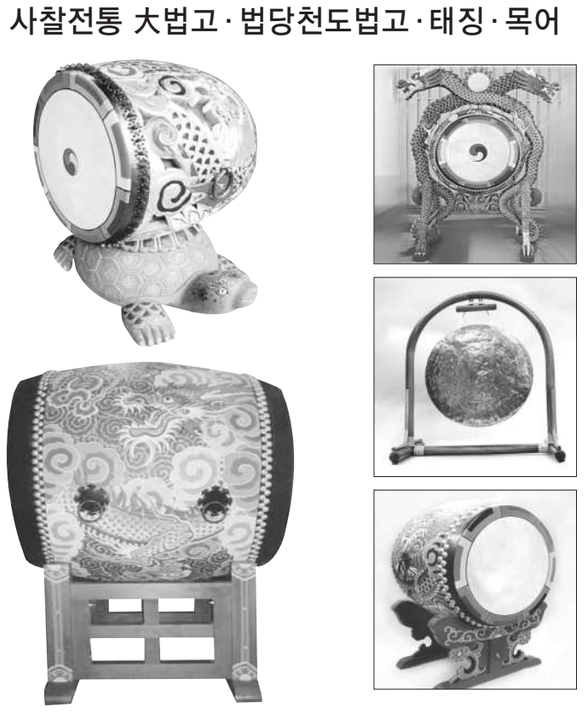
만약에 내가 독불장군으로서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줬고,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 이 물건 이 색(色)이, 내 몸 육신이 나라고 산다면
그렇게 나라고 했으니 수많은 생명의 능력은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홀연히 단맛이든 쓴맛이든 다 합친 능력이 스스로서 나와서 자기가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대로 못 알아듣는 말 할 게 없이, 우리 지금 이 세상 얘기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잘됐든지 못됐든지. 여러분이 좀 더 의정 나는 것을 물어서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게 이해가 깊어질 때에 진실하게 놓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저의 전생이 있다면 여기 모인 신도님들의 전생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전생과 전전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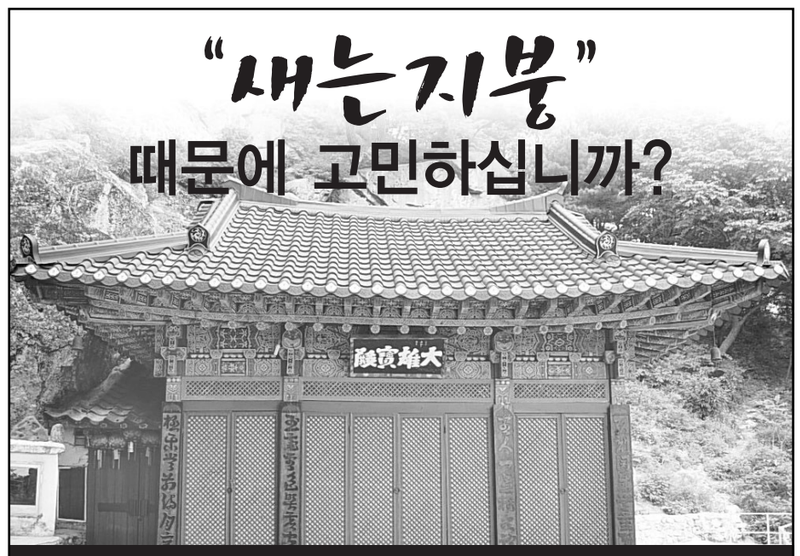
큰스님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봐도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을 텐데, 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전생이 있고, 전생이 없다면 지금 현생이 없겠죠. 그런데 전생과 현생이 없다는 것은 전생이 바로 지금 현생과 더불어 한데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심이 현재심과 동시에 합쳐졌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 전생은 반드시 있죠.

※위 법문은 1986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뜩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신년수상

갈등과 반목을 넘어 희망의 새해로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인

새해가 밝았다.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사회 정치적으로 유난히 일도 많고 말도 많았던 갑오년을 뒤로하고 서력 2015년 을미(乙未)년이 온 것이다. 올해 을미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사슬에서 광복을 맞은지 70주년, 그리고 기미 3.1독립운동 9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또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70주년의 해' 이기도 하다.

올해는 '양(羊)' 의 해이다. 을미(乙未)는 60간지의 32번째로 '을(乙)' 은 색으로 푸른(靑)색을 나타내고 양(未)는 12지의 '羊' 을 상징한다. 그래서 '靑羊' 곧 '푸른 양' 의 해가 된다. 푸른 색은 진취적인 뜻이 있음으로 양치고는 매우 활달한 양의 해가 될 것 같다.

양(羊)은 본디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지어 산다. 오늘 날 양은 면양(綿羊)을 말하지만 20세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양이나 염소, 특히 염소를 가리켜 양이라 많이 했다고 한다.

어쨌든 양은 온순하고 사랑스러우며 진실하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예로부터 천신이나 조상신에 대한 산 제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런 것을 희생(犧牲)이라 하는데 양을 흔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희생양(犧牲羊)' 이란 용어가 유래 했던 것이다.

양의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자연과 동물들을 상형화한 한자어에서는 '미(羊)' 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울 미(美), 착할 선(善), 오를 의(義), 상서로울 상(祥), 희생할 희(犧) 등이 모두 '미(羊)' 를 위주로 만들어진 글자들 이다. 이들 글자대로 보면 양은 아름답고, 착하며, 올곧고, 상서롭고, 희생적이다.

양이 갖는 이러한 미덕들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도덕적 가치이며 또한 심미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을 하찮은 동물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12지중 이처럼 가장 아름답고 선한 해에 속하는 을미년에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봉변과 비극을 겪은 일이 있다. 바로 '을미사변' 이다.

을미사변은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95년(고종 32) 10월 8일 새벽 일본 미우라(三浦梧樓)공사의 밀명을 받은 왜병, 왜경, 낭인 무리들이 경복궁 옥호루(玉壺樓)를 기습하여 국모 명성황후(明成皇后, 1897년 추존)를 시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청인공노의 참혹한 만행을 말하는 것이다.

민비 시해한 을미사변 120년
일본은 마땅히 잘못 사과해야
분단 70년 맞아 통일 준비 노력

이전 해인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요동반도 대만 팽호도 등을 청으로부터 차지하게 되자, 일본의 대륙 진출을 꺼린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의 포기를 강요한다.

이를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조선 정부 내에서도 친로 인사들이 웨베르 러시아 공사와 비밀접촉을 가지며 '인아거왜(引俄拒倭,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거절함)정책' 을 시도한다. 이에 일본은 궁중의 실세이자 친로(親露)접근을 주도한 민황후를 제거, 조로(朝露) 접근을 일도양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일이다.

이제 일본은 을미사변 120주년을 당하여 늦었지만 마땅히 그 때의 잘못을 우리나라에 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응당 저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갈라진지 어언 70년. 그동안 강산이 변해도 7번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두 번, 세 번이 지나게 되었다. 여기서 더 가면 한 세기. 점점 통일은 멀어 진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또 빈다. 통일이여 어서오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통일이 오도록 노력하자고. 이런 염원 속에서 우리는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을 또 맞으며 새해의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사부대중칼럼

물질보다 정신에 삶의 방점을



배광식
사단법인 참수레 이사장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인생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몇 년 전 속리산 법주사에서, 카이스트 외국인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내놓았던 토론 주제이다. 학생들은 인생은 '괴로운 것', '즐거운 것',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 '덤덤한 것' 등 제각기의 소견을 말하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보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괴로움(일체개고一切皆苦)' 이라고 하셨다. 괴로움이란 풀어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 이다. 느낌에서 '과로운 느낌(고수苦受)', '즐거운 느낌(낙수樂受)', '덤덤한 느낌(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 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일체는 괴로움' 이라고 하신 것은 모순이 아닌가. 즐거운 느낌은 즐거움이지 어찌 괴로움이 되겠는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춥거나 덥거나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은 괴로운 느낌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괴로움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롭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도 괴롭다. 단적으로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몸과 마음 자체도 괴로움이다. 이것들이 '괴로워서 괴로운 것(고고苦苦)' 이다.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플 때 앉아서 쉬면 즐겁고 편안하다. 그러나 계속 앉아 있으면 배기고 괴롭다. 술을 마시면 들뜨고 즐거워진다. 그러나 술이 깨면 몸이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괴롭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즐겁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으면 만나는 것이 괴롭다. 즐겁고 좋아서 결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혼률이 높은 이유이다. 이것들이 '무너지는 괴로움(괴고壞苦)' 이다.

소 닭 보듯 덤덤한 느낌이었던 것이 어느 날 좋아지기 시작한다. 또는 어느 날 싫어지기 시작한다. 싫어지면 싫어서 괴롭고, 좋아진 것은 궁극에는 무너지기 때문에 괴롭다. 이것들이 '변해서 괴로운 것(행고行苦)' 이다.

따라서 즐거움도, 덤덤함도, 괴로움도 궁극에는 괴로움이니 '일체는 괴로움' 이다. 이것이 대의왕 부처님의 인생에 대한 통찰적 진단이다.

스위덴의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된 가구점 이케아(IKEA)가 12월 18일 한국에 진출해 광명시에 이케아 광명점을 개점하였고, 개점 후 4일 동안 영하 10도 가까운 추위에도 5만의 인파가 몰렸다 한다. 또 TV 애니메이션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편에 나오는 공룡 로봇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각 완구매장 앞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고 한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식량이 넉넉지 않아 하루 세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1년에 새옷은 설빔과 추석빔으로 두 번 얻어 입으면 족했던 때를 겪었다는 것이 잘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사는 지금이 대부분 국민이 먹을거리가 부족해 전전긍긍하던 때에 비해 더 행복한가?

우리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이 싸움판 애니메이션에 파묻혀 어려서부터 싸움에 물들어가고, 그 등장 캐릭터 모형 장난감을 갖기를 갈망하고, 부모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하는 현 세태가 이대로 묵과할 수 있는 것인가?

경제적 풍요를 이룬 사회가, 정신문화적인 삶의 지향점이 확립되지 않으면, 사치와 퇴폐와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인류의 지난 역사에서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인생고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사문의 길을 택하였다.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를 밝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바른 견해를 비롯한 여덟겹의 길을 닦아 '일체의 괴로움' 을 벗어나셨다.

우리가 물질만능시대에 물질의 탐닉이라는 끈끈이주걱에서 빠져나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연기적 존재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갈애를 놓아버리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국제불교학교, 학과 전환 환영한다

용인 화운사에 소재했던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의 학과로 정식 전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2011년 개교했던 국제불교학교는 불교 세계화 인재 불사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이미 적지 않은 인원이 국제불교학교를 거쳐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교육 대상이 비구니 스님에 국한돼 있어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한 갈망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구랍 31일 조계종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협약은 의미가 크다. 두 기관이 맺은 협약은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내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를 위탁 개설 · 운영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기는 총 5학기제로 정원은 학년당 10명이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에 입학한 스님들은 경주캠퍼스 수행관인 석림원과 사라림에서 생활하게 되며 등록금 일체도 종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는 영어로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실용적 교육에 비중을 더 두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동국대 석사 과정 학과로 정식 전환되면서 해외 포교 전문 승가 인력 양성에 '청신호' 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대상이 기존 비구니 스님에게 비구 스님에게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종단은 졸업생 중 일부를 해외 · 재한 외국인 포교 인력으로 채용 ·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을 일컬어 흔히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한다. 국제불교학교의 학과 전환은 불교 세계화 불사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이곳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선봉장들이 배출되길 바란다.

성보 빛내는 박물관 유물 기증

지난해 10월 30일 불교계에서는 근현대 고승들의 유품들이 대거 문화재로 등록됐다. 용성 스님(1864~1940)의 〈신역대장경〉, 한암 스님(1876~1951)의 가사 등이 한국 근현대사를 반영했다며 그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묵혀 있던 문화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나섰다고 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교계 곳곳에 산적해 있는 고승들의 유품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근현대 불교문화재를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불교계가 공유해 공공의 성격을 높이자는 게 취지이다.

'함께 채워가는 박물관' 을 캐치프레이즈로 전개되는 이번 사업은 불상과 불화, 불구뿐만 아니라 조계종 근현대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현대 고승들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등과 평소 모시던 원불, 문방사우,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당시 시대가 반영될 수 있는 근현대 자료들을 기증받아, 보존처리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까지 추진한다.

기증자에게는 불교중앙박물관 기증증서가 발급되며 전시 출품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한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증관련 단독코너를 개설해 기증유물 설명과 기증자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다.

사실 불교문화재 기증운동은 후손에게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전해주고, 종단이 불교문화재를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박물관에서는 개인소장자들이 문화재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망실, 훼손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문화재의 연구와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혹시 불자 중에도 집안 한켠에 잠들어 있는 근현대 문화재를 찾아보자. 자신의 문화재가 한 시대를 조명하는 사료로 연구될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教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教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教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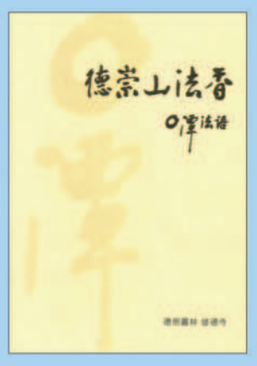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 · 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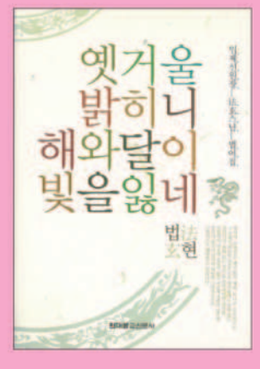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